

한국 교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K-EPIC 목회 패러다임 분석: 김학중  
목사의 목회 철학과 사역 실재를 중심으로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메리디스 솔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정진욱 목회학박사

서동원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26년 5월

Copyright © 2026 Dongwon Seo

All rights reserved.

## ABSTRACT

**An Analysis of the K-EPIC Ministry Paradigm for Sustainable Growth of the Korean Church: Focusing on the Ministry Philosophy and Practices of Rev. Hak-Jung Kim**

Dongwon Seo

Dream Church, Ansan, Korea

This study explores pastoral paradigms that enable sustainable growth for the Korean church amidst the complex crises of the post-pandemic era. Specifically, it aims to define the theoretical framework and practical viability of the "K-EPIC" model. The COVID-19 pandemic accelerated multifaceted challenges for Korean churches, including declining memberships, the privatization of faith, weakened communal ties, and diminishing public trust.

To address these issues, this research theoretically examines Leonard Sweet's EPIC model, confirming its effectiveness as a communication method for contemporary culture. However, the study identifies limitations in applying the original model directly to the unique social and religious structures of South Korea, necessitating a more flexible adaptation suited to the local context.

Accordingly, this study employs a qualitative case study of Rev. Hak-jung Kim's pastoral philosophy and the ministries of Dream Church to articulate the "K-EPIC"

model. Through a combination of theoretical research and participant observation, this paper provides an integrated analysis of worship, discipleship, physical space, media ministry, and engagement with younger generations and the local community.

The findings demonstrate that K-EPIC is not merely a strategy for church growth but a paradigm where Experience, Participation, Image, and Connection (EPIC) are organically integrated. This multifaceted approach offers a structural response to the privatization of faith, communal dissolution, and the aging demographic within the church.

Despite its potential, the study acknowledges the limitations of the K-EPIC model as practiced at Dream Church. Given its development within a megachurch context, scalability to small and medium-sized churches may be challenging. Therefore, implementation across the broader Korean church requires careful contextualization and ongoing empirical validation.

In conclusion, this research identifies the K-EPIC model as a viable alternative pastoral paradigm that allows the Korean church to preserve the essence of the Gospel while pursuing communal restoration and sustainability in a changing society.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presenting a practical and structural model for the future of Korean Christianity.

## 국문초록

한국 교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K-EPIC 목회 패러다임 분석: 김학중  
목사의 목회 철학과 사역 실재를 중심으로

서 동 원

꿈의교회, 안산, 대한민국

본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교회가 직면한 상황과 위기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목회 패러다임을 분석하고 K-EPIC 모델의 이론적 구조와 실천적 가능성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한국 교회에 교인 수 감소, 신앙의 개인화, 공동체성 약화, 사회적 신뢰 하락이라는 복합적 위기를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레너드 스윗의 EPIC 모델을 이론적으로 검토하였고 현대 문화에 대한 소통 방식으로 유효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 모델은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앙적 구조 속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를 지니며, 한국의 상황과 현실에 맞는 유연한 모습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김학중 목사의 목회 철학과 꿈의교회 사역을 질적 사례 연구를 통해 분석하며 그 안에 적용된 한국식 K-EPIC 모델을 설명하였다. 이론 연구와 질적 참여관찰을 병행하였으며 예배, 훈련, 공간, 미디어 사역, 다음 세대 및 지역 사회 연계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그리고 K-EPIC은 EPIC으로 교회를 성장시키는 전략이 아니라 경험, 참여, 이미지, 관계의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통합될 수 있으며, 복합적인 요소들이 신앙의 개인화와 공동체 해체, 교회의 고령화라는 위기에 구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패러다임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꿈의교회의 K-EPIC 모델이 가진 한계도 있다. 이 모델이 대형교회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소형 교회에 적용하는데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개교회의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신증함과 지속적 검증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K-EPIC 모델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변화된 사회 속에서 공동체 회복과 지속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대안적 목회 패러다임을 규명하며 본 연구는 한국 교회에 실재적이고 실천적인 구조적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 목차

감사의 글 .....	ix
I. 서론 .....	1
A. 문제동기 및 목적 .....	1
B. 연구 방법 및 범위 .....	4
II. EPIC 모델의 개념 .....	6
A. 레너드 스윗의 EPIC 모델 .....	6
1. 경험적(Experiential): 이성에서 경험으로 .....	7
2. 참여적(Participatory): 관찰자에서 참여자로 .....	10
3. 이미지 추구(Image-driven) .....	12
4. 관계적(Connected) .....	15
B. 미국교회에서의 EPIC 모델 적용 .....	16
C. 한국교회에 적용 가능성 .....	17
III. 한국 사회와 교회의 현 상황 .....	19
A. 한국 사회의 변화 .....	19
1. 초저출산 .....	19
2. 외로운 사회 .....	20
3. 무속 신앙 관심과 의존도 증가 .....	21
B. 한국 교회의 변화 .....	23
1. 한국 개신교 인구 감소 .....	23
2. 한국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 증가 .....	24

IV.	K-EPIC 과 꿈의교회 .....	26
	A. K-EPIC 이 적용된 꿈의교회 .....	27
	1. 경험하고 느끼는 교회(Experiential Church) .....	27
	a. 레포즈 교회: 지역 문화공간을 활용한 공동체(E+C) .....	27
	b. 드림키즈빌리지: 다음 세대를 위한 감각적 신앙 체험 공간(E+I+C) .....	29
	c. 몸의 감각과 경험을 극대화 시키는 예배 .....	34
	2. 교인들이 참여적인 교회(Participatory Church) .....	37
	a. 평신도 사역자가 이끄는 훈련 프로그램 .....	37
	b. 교회 카페와 편의점: 자발적 참여와 섬김 .....	39
	3. 이미지를 추구하는 교회(Image-driven Church) .....	42
	a. 더 갤러리: 이미지를 통한 열린 교회 .....	42
	b. 침묵 기도실 .....	45
	4. 연결되고 이어주는 교회(Connected Church) .....	48
	a. 일대일 양육과 큐티 .....	48
	b. 시니어 사역 .....	53
	c. C2C 미디어 교회 .....	56
	B. K-EPIC 의 효과와 평가 .....	58
	1. 긍정적인 효과 .....	58
	2. 한계와 지속 가능성 .....	59
	a. 전통적 교회 구조와의 갈등 .....	59
	b. 지속적인 투자 필요성 .....	59

V. 결론	61
A. 연구 요약	61
1. 연구 배경 요약	61
2. 연구 목적과 연구 질문	61
3. 연구 방법 요약	62
B. 주요 연구 결과	62
1.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교회의 위기	62
2. EPIC 모델의 유효성과 한계	63
3. K-EPIC 모델의 핵심	63
C. K-EPIC 모델의 목회적 의의	63
1. 실천신학적 의의	63
2. 한국 교회를 위한 목회적 대안	64
3.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에 대한 시사점	64
D. K-EPIC 모델의 한계와 비판적 성찰	65
1. 사례 연구의 한계	65
2. 재현 가능성의 문제	65
3. 신학적 위험 요소	66
E.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	66
F. 결론적 제언	67
참고문헌	69

## 그림 목차

(그림 4-1) 드림키즈빌리지 외관 .....	30
(그림 4-2) 키즈카페 안을 볼 수 있는 테이블과 의자 .....	31
(그림 4-3) 키즈카페 내부 .....	31
(그림 4-4) 킹스 블랑제리 빵과 브런치 메뉴 안내 .....	32
(그림 4-5) 드림키즈빌리지 농구 오락기와 게임기 .....	33
(그림 4-6) 주일저녁예배 W 워십 조명 .....	35
(그림 4-7) 2025 년 송구영신예배 향기나는 말씀카드 .....	37
(그림 4-8) 2024 년 전략세미나 훈련사역국 비전과 프로그램들 .....	38
(그림 4-9) C-Space 편의점 외부와 내부 .....	40
(그림 4-10) 교회 킹스 블랑제리 카페 내부와 공원 뷰 .....	41
(그림 4-11) 더 갤러리 외부 문과 내부 전시 작품전 .....	43
(그림 4-12) 2025 년 2 월부터 12 월까지의 전시 일정 .....	45
(그림 4-13) 침묵기도실 입구 .....	46
(그림 4-14) 침묵기도실 내부 .....	47
(그림 4-15) 기존 일대일 양육 책 바이블워크 STEP 1,2,3 .....	50
(그림 4-16) 바이블워크 제 2 과, 2025 년 개정판 .....	51
(그림 4-17) 2024 년, 2025 년 바이블워크 일대일 양육자 세움 과정 포스터 .....	52
(그림 4-18) 2025 년 바이블워크 일대일 양육자 세움 과정 수료자들 .....	53
(그림 4-19) 2025 년 일대일 양육 양육자, 동반자 찬양 .....	53
(그림 4-20) 경로당 섬기는 모습들-헤어, 네일, 음식 .....	55

(그림 4-21) C2C 미디어교회 홈페이지 교회 소개 ..... 57

## 감사의 글

이 연구가 완성되기까지 늘 함께하시며 지혜를 주시고 상황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옆에서 지도와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꿈의교회에서 다양한 목회의 현장을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학중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목회지원실, 미디어교회, 예배기획팀, 훈련사역국, 미래전략국, 지역사역국 등 여러 사역 부서의 경험들은 연구가 이론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목회 현장과 긴밀히 연결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신 목사님의 사려 깊음에 특별한 감사를 전합니다.

또한 저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EPIC 모델에 대한 강의를 통해 현대 교회의 문화적 전환과 목회 패러다임에 대한 통찰을 주신 레너드 스윗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수님의 EPIC 모델은 본 연구의 기반을 형성하는 데 기초가 되었으며, 기존과 다른 관점에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신학교 신학과 학부 과정과 드류대학교 M.Div. 과정 및 D.Min. 과정 속에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며 도와주신 김영래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논문의 방향성과 함께 세심한 지도는 본 연구가 논리적이고 균형 잡힌 실천신학 연구로 이어지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연구의 여정 속에서 기도와 격려로 함께해 주신 부모님과 상황을 이해하며 기다려준 아내와 자녀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논문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교회의 회복과 변화에 기여하기를 소망합니다.

2026 년 5 월

서 동원

# I. 서론

## A. 연구 동기 및 목적

2020년부터 전 세계에 확산된 코로나19 팬데믹은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초래하였다.<sup>1</sup>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산업, 종교, 삶의 방식 등 모든 분야가 그 영향을 받았다. 한국 교회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현장 예배는 중단되었고 예배는 온라인으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성도들의 친교와 공동체 활동은 전면적으로 제한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일시적인 변화를 넘어 교회의 구조를 변화시켰고 신앙 전반에 걸친 위기를 초래하였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 교회는 예배 환경의 변화 뿐 아니라 교회 수와 교인 수 감소라는 양적 위축과 신앙의 개인화, 공동체성의 약화,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 상실이라는 구조적, 신앙적 위기에 직면했다. 이러한 위기는 한국의 인구 감소와 탈종교화 현상, 교회의 도덕적·윤리적 문제 등 기존에 누적된 요인들과 결합되며 더욱 심화되었다.<sup>2</sup>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을 급격히 드러내는 촉매제로 작용하였다.

목회데이터연구소는 코로나19를 지나며 현재 한국 교회의 가장 가시적인 변화는 교인 수 감소라고 보았다.<sup>3</sup> 유례없는 성장에 이어 급하강하는 한국 교회를

---

<sup>1</sup> 박영숙, 제롬 글렌, 『세계미래보고서』 (서울: 비즈니스북스, 2020), 13.

<sup>2</sup>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 교회 진단 리포트』 (서울: 두란노, 2025), 288-289.

<sup>3</sup> 지용근 외, 『한국 교회 트렌드 2024』 (서울: 규장, 2023), 29.

바라보며 존립하기 힘들 것이라는 경고를 하였고 단순한 회복을 넘어 리빌딩을 통한 생존이 필수임을 강조하였다.<sup>4</sup> 이와 같은 위기에 대하여 한국 교회 교단들과 큰 교회들은 동의를 하며 극복을 위한 목회적 대안들을 논의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교회들은 전통적인 방식이나 코로나19 이전에 고수하던 방식에 머무르며 시대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단순한 위기 극복의 시기를 넘어 교회의 정체성과 목회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재구성되어야 하는 시대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레너드 스윗의 EPIC 모델은 경험, 참여, 이미지, 관계를 중심으로 교회의 모습과 방향을 전환하고 발전시키려는 시도로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EPIC 모델은 주로 서구 문화 환경, 특히 미국 교회를 배경으로 발전된 이론으로 신앙의 개인화와 공동체 붕괴, 사회적 신뢰 상실이라는 한국 교회의 구조적 현실에 대한 대응에는 분명한 한계를 지닌다. 특히 문화적 소통 방식의 혁신에는 효과적이지만 교회의 공동체 구조를 재편하고 장기적 신앙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인 답이나 전략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근본적 한계를 가진다.

이에 본 논문은 EPIC 모델이 한국 교회의 사회적, 문화적 현실 속에서 재구성되고 발전된 K-EPIC<sup>5</sup> 모델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교회의 위기에 대한 목회적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K-EPIC은 경험과 참여, 이미지와 관계의 요소를 교회의 생태계 전반에 통합함으로써 개인의 신앙과 공동체 회복을 지향하며 교회를 지역 사회 안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공적 공동체로 발전시키는

<sup>4</sup> 지용근 외, 『한국 교회 트렌드 2024』, 31.

<sup>5</sup> K-EPIC은 Korean EPIC의 줄임말이다. 필자가 K-Drama, K-Food, K-Culture, K-Pop에서 착안하여 만든 단어이다.

통합적, 그리고 대안적 목회 구조를 형성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필자는 코로나19 이후 회복을 넘어 성장과 확장을 보여주는 꿈의교회와 김학중 목사의 사역을 사례로 분석한다. 필자는 2019년부터 현재(2026년)까지 꿈의교회에 있으며 목회지원실, 미디어교회, 예배기획팀, 훈련사역국, 미래전략국 등 다양한 사역들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지금은 훈련사역팀장과 지역교회(교구) 목회를 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기존 목회 방식과 차별화된 꿈의교회의 새로운 접근들을 보았고 그것들이 코로나 위기 상황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지탱하고 회복시키는 것을 가까이에서 보았다. EPIC 모델이 한국 교회의 현실 속에서 K-EPIC 형태로 재구성되어 실제 목회 현장에서 구현되고 있음을 관찰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첫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교회는 어떠한 구조적, 신앙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가? 둘째, EPIC 모델은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는 데 어떤 한계를 가지는가? 셋째, K-EPIC 모델은 한국 교회 현실 속에서 어떤 대안적 가능성을 제시하는가?

그리고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 첫째, 코로나19 팬데믹과 포스트 코로나의 전환 속에서 한국 교회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와 신앙적 변화의 양상을 분석하고 그 배경 위에서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둘째, 스윗의 EPIC 모델을 설명하고 그것이 미국 교회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떤 한계를 가지는가 살펴본다. 셋째, 김학중 목사의 목회철학 속에서 한국 교회의 문화적, 사회적 특수성에 맞게 재해석되고 발전된 K-EPIC을 분석한다. 넷째, 꿈의교회의 다양한 사역 현장(예배, 훈련, 공간 구성, 다음 세대, 미디어, 지역사회 사역 등)에 나타난 K-EPIC의 실제 구현 사례를 탐구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 교회에 대안적 가능성을 제시한다. 다섯 번째, K-EPIC 모델의 효과와 한계를 함께

평가하고, 한국 교회에 보편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조건과 과제를 도출한다.

본 논문은 K-EPIC 모델이 교회 성장의 도구나 전략이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교회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는 유효한 목회적 대안과 모델이 될 수 있는지를 고찰한다. 이론과 실재를 통합적으로 분석하며 변화된 시대 속에서 한국 교회의 공동체 회복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 B.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논문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그 이후에 나타난 한국 사회와 교회 안의 현상들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적 전환과 변화 속에서 교회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목회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기존의 레너드 스윗의 EPIC 모델에 기반하여 변형되고 발전한 모델이다. 이를 위해 세계의 흐름 속에서 특히 한국 사회에 두드러지는 현상과 모습들을 서적, 통계자료, 논문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토양 위에서 한국 교회가 겪는 실제적인 어려움과 구조적 문제, 현상 등을 살피고 그에 대한 대안적 방향과 나아갈 모습들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 중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하여 실행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이론적 고찰과 사례 연구를 병행하였다. 먼저 레너드 스윗의 EPIC 모델을 설명하고, 이 모델이 미국 교회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발전되었는지 살펴본다. 그 다음으로 한국 사회와 문화의 특수성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변화를 분석하며 한국 교회에 스윗의 EPIC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와 어려움을 분석한다.

이후 김학중 목사의 목회 철학과 방향이 담긴 K-EPIC 모델이 사역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예배 환경, 미디어 활용, 공간 구성, 다음 세대 사역, 평신도 사역과 교제, 지역사회 연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적용, 발전된 사례를 설명하고 효과를 통해 한국 교회가 나아갈 목회적 방향성과 전환 가능성을 제시한다. 더 나아가 K-EPIC 모델이 한국 교회에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지 파악하고 한계와 과제 또한 검토한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사역에 참여한 꿈의교회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2020년부터 2025년)의 꿈의교회의 전반적인 사역을 연구 범위로 설정하였다. 물론 연구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위험이 존재하지만 목회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속적 관찰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참여관찰 형식의 연구를 채택하여 사례 분석과 비판적 성찰을 병행하여 학문적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 II. EPIC 모델의 개념

### A. 레너드 스위트의 EPIC 모델

레너드 스위트는 포스트모던 사회 속에서 교회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접근 모델로 EPIC 모델을 제시하였다. EPIC 모델은 영어 네 단어(Experiential, Participatory, Image-driven, Connected)의 앞 글자를 조합한 스위트의 단어이다. 영어 뜻에서 알 수 있듯이 EPIC은 경험, 참여, 이미지, 연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것은 “포스트모던 해석학, 순수 과학, 인지 과학을 배경으로 발전한 모델”<sup>6</sup>이며, 기존 교회의 전통적인 시각이나 접근과는 다르다. 이에 따라 포스트모던 시대라고 불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어떤 사람은 EPIC 모델을 세속적이라고 비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세속적이라기 보다 초대교회의 모습과 비슷하다.<sup>7</sup> EPIC 모델은 정보 중심, 설교 중심의 전통적인 목회를 경험적, 관계적, 이미지 추구적, 공동체적인 신앙 공동체로 전환하게 한다. EPIC 모델 안에 어떤 특징이 있어서 이런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일까. 하나씩 나열하며 그 특징을 알아보자.

---

<sup>6</sup> 김영래, “다중적 삶을 통한 기독교 교육 : Leonard Sweet의 EPIC 교회모델을 기초로,” 『신학과 세계』 43 (2001), 229.

<sup>7</sup> 사도행전 2:42-47에서 초대교회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공동체였다.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는 공동체였다.

## 1. 경험적 (Experiential): 이성에서 경험으로

포스트모던 시대는 인간의 사고와 수용 방식에 변화를 가져왔다. 전통적인 이성 중심의 구조는 약화되고 감각과 정서, 경험과 체험의 비중이 커졌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정보를 받는 수동적 소비자였다면 포스트모던 시대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 자신의 감각과 감정으로 의미를 발견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받아들일지 말지 선택하는 능동적 주체자가 되었다. 아무리 정확한 정보여도 설명된 정보보다 경험한 정보가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것은 사람들이 정확한 정보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다. 정보 소비자로서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한, 그리고 경험이 담긴 정보를 원한다는 것이다.<sup>8</sup> 내가 들어서 아는 방식보다 내가 느껴봐서 아는 방식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철학자 흄의 철학과 관련이 있다. 경험을 오류의 원천이라 생각한 데카르트와 달리 흄은 경험을 “참된 지식을 얻기 위한 유일무이한 방법”<sup>9</sup>으로 여겼다. 이러한 생각은 여러 산업과 기업 문화의 흐름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회사들은 제품만 판매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브랜드와 삶의 경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어 그것이 제품의 판매로 이어지게 한다.<sup>10</sup> 스타벅스는 세계 최고의 커피를 제공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가는 이유는 그곳에서 커피를 시각과 후각으로 느끼며 정서적 공감을 하기 때문이다.<sup>11</sup> 그리고 이 경험은 사람들의 만족으로 이어진다.

<sup>8</sup> 레너드 스윗,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 교회』 김영래 역 (서울: 좋은씨앗, 2002), 67.

<sup>9</sup> Ibid.

<sup>10</sup> Ibid., 67-69.

<sup>11</sup> 레너드 스윗,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김영래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39.

1987년 이래로 미국인들은 다른 곳보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돈을 쓰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2026년인 지금도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엄청난 규모로 커졌고, 미국을 넘어 전세계 사람들이 그 산업을 공유한다. 게임, 예능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유튜브, 넷플릭스, 빌보드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분야들이 글로벌한 문화를 형성한다. 이 산업의 특징은 사람들이 직접 경험한다는 것이다.

스윗은 책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 교회』에서 만년필 이야기를 한다. 컴퓨터와 스마트 폰이 발전한 지금도 몽블랑과 파커 만년필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 AI가 발달하여도 사람들은 여전히 만년필을 쓰며 손끝의 경험을 원한다.

관광산업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패키지로 해외 여행을 가는 사람도 많고, 혼자 배낭 여행을 가는 사람들도 많다. 왜 관광 산업이 커질까? 관광 산업은 경험 산업이기 때문이다.

스윗은 교회도 경험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경험적인 교회(Experiential Church)가 되어야 하며, 교회 안에서 교인들은 신앙을 경험이나 감각을 통해 인지하고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경험을 중시하는 종교들이나 영성과 관련된 산업들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커지기 때문에 교회가 그것을 경계하고 따라가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교회 안에서 경험의 요소들을 발전시키고 성장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뉴에이지로부터 아메리칸 인디언까지 영성과 관련된 다양한 스펙트럼 안의 분야들이 관심을 받으며 인기를 끌고 있다.<sup>12</sup> 한국도 젊은이들이 무속신앙과

<sup>12</sup> 스윗,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 교회』, 72.

불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데 그 중심에 경험이 있다. 그런데 이들의 성장과 발전과 인기를 보면 그 안에 기독교 전통의 모습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sup>13</sup> 기독교와 교회는 경험과 관련된 좋은 전통과 유산들이 있음에도 잘 살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스윗은 교회가 변해야 한다고 말한다. 교인들은 교회에서 이상적이거나 이성적인 것을 요구하기 보다는 실제적인 것을 요구한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증명보다 경험이다.<sup>14</sup> 증명되는 것도 힘들지만 증명된다고 해서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증명이 신앙을 결정한다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고 정의하는 하나님보다 내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기를 원한다. 내가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회는 교인들의 니즈(needs)를 반영해 설교와 같은 정보 전달 중심적인 예배나 교회 문화를 탈피하여 감각과 느낌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한다. 이 경험은 “개인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핵심 열쇠”<sup>15</sup>이다.

이 변화는 예배 세팅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제 예배는 설교만으로 구성된 전달 중심의 시간이 아니라 오감으로 하나님을 총체적으로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sup>16</sup> 설교, 음악, 조명, 공간 구조, 향기 등 예배 안의 여러 구성 요소들이 하나의 메시지를 담은 복합적 경험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스윗은 목회자의 임무는 어떤 것이 좋은 교회음악인지 교인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교회 음악을 들려줌으로 교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sup>17</sup> 이는 목회자의 역할이 교육을 위한 역할을 넘어 교인들이 감성과 은유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인도자나 통로로 확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sup>13</sup> Ibid., 74.

<sup>14</sup> 김영래, 『기독교교육과 삶』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17), 230.

<sup>15</sup> 스윗,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 교회』, 78.

<sup>16</sup> Ibid.

<sup>17</sup> Ibid., 230-231.

개신교의 교인은 점점 줄어들지만 카톨릭 교회와 성공회의 교인이 늘어나는 이유는 그들이 신앙 경험과 신비의 본질을 약화시키거나 왜곡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황청은 여전히 엑소시즘(EXORCISM)을 인정하고 이야기한다. 사탄의 존재와 신비적인 부분을 기꺼이 말한다.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거나 설명하려 하지 않으며 모든 것에 대해 말하려 하지 않는다. 신앙의 신비로운 영역으로 두는 것이다. 이것이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물론 경험을 무조건 옳다고 말할 수는 없다. 스윛은 경험은 진리의 마지막 심판자가 아니며 성경과 기독교 전통과 관련되지 않은 경험은 위험하다고 말한다. 경험이 중요하지만 그 기준과 기본이 성경이어야 한다. 맹목적인 경험의 이상화는 위험하다.

이에 따라 교회는 경험을 활용해야지 그것을 유행으로 전락시켜서는 안된다.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과 유행이 되는 것은 다르기에 경험을 통한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2. 참여적 (Participatory): 관찰자에서 참여자로

경험은 참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개인이든 소수이든 다수이든 경험은 참여로 이어진다. 물론 경험은 목적과 참여로 나눌 수 있지만 경험에서 더 중요하고 힘이 있는 것은 참여이다.

따라서 사회와 기업들은 참여를 통한 마케팅을 사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는 카페에 들어가면 커피 향이 사람들의 코를, 그리고 다양한 원두들과 텀블러와 같은 굿즈들은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바로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힘이 없다. 커피나 굿즈를 보러 카페에 가는 사람은 없다. 커피를 마시러 가고, 텀블러나 머그컵을 구매하기 위해 간다.

교회나 영성도 그렇다. 경험에 이어 참여가 중요하다. 목회자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교인들에게 경험의 장을 만든다면 당연히 교인들은 참여를 할 수 밖에 없다. 경험은 참여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참여는 수동적 참여가 아니라 능동적 참여이다.

사람들이 신앙서적을 통해 신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신앙이 무엇인지 머리로 알고, 감동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교회를 가거나 목사님 또는 주변에 있는 크리스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면 신앙에 대한 관심 정도의 경험에서 끝나는 것이다. 직접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거나, 기도를 해야, 그런 참여를 해야 신앙이 무엇인지 더 알 수 있고 경험도 체험적인 경험이 된다.

교회는 이런 참여의 기회나 장을 만들어야 한다. 교인들은 참여 속에서 자신들의 관심들을 나누고 자신들의 경험과 생각을 나눈다. 이것은 포스트모던 시대의 특징 중 하나이다. 스윗은 이 시대를 참여의 시대, 접근의 시대라고 정의하며,<sup>18</sup> 교회도 사람들의 참여가 중요하고 “참여가 없는 예배는 최악의 예배”<sup>19</sup>라고 말하기까지 한다.

오늘 날 교회를 보면 예전과 다르게 교인들의 참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전에는 목회자들이 담당하던 교육이나 목회적 돌봄도 훈련을 통해 세워진 평신도 리더가 담당한다. 김영래 교수는 이것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때 외친

<sup>18</sup> 김영래, “다중적 삶을 통한 기독교 교육,” 441.

<sup>19</sup> 스윗,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114.

만인사제설과 그것의 기초가 되는 베드로전서 2장 9절<sup>20</sup>의 재발견과 재해석이라고 보았다.<sup>21</sup> 목회자 중심의 예전 목회가 이제는 평신도 중심의 목회로 변화하였고 이 변화는 예배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평신도는 예배의 수동적 소비자가 아니라 참여자이고 창조적 해석자이다.<sup>22</sup> 설교도 목회자가 권위적인 강단에서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강단을 내려와 교인들과 눈을 맞추며 양방향으로 소통한다. 이것은 교회가 말씀을 선포하는 자와 듣는 자 간의 위계적 구조를 넘어서 말씀을 양방향으로 소통하고 나누는 참여 공동체로의 변화를 요구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 의미에서 참여하는 평신도는 목회의 동역자이고 파트너이다. 그리고 그 참여 속에는 거룩한 담대함이 있다. 목회자와 평신도는 거룩한 부담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교회의 일과 예배에 참여할 때, 사역은 더 풍성해지고 자발적인 참여는 사역을 더 강력하게 만든다.

이러한 참여의 모습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더 확대되었고 활성화되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초월하여 온라인 상에서 참여를 가능하게 하였다. 인터넷 공간에서 질문과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실시간으로 목회자와 교인들, 교인들과 교인들은 소통한다.

### 3. 이미지 추구 (Image-driven)

이미지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글로 된 긴 설명이 없어도 이미지 한 장이

<sup>20</sup>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9, 개역개정).

<sup>21</sup> 김영래, “다중적 삶을 통한 기독교 교육,” 441.

<sup>22</sup> 스윗,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114.

모든 것을 설명한다. 마케팅을 하는 기업은 이미지를 이미 활용하고 있고, 소셜 미디어들은 이미지를 통해 이루어진다. 사람들은 글보다는 이미지와 사진을 선호하고, 빠르게 ‘좋아요’를 누르고 다음 이미지나 사진으로 넘어간다. 특히 인스타그램은 더욱 그렇다.

이미지를 추구하는 모습은 요즘 시대만의 특징은 아니다. 포스트모던 시대로부터 시작되었으며 2026년인 지금도 이미지는 여전히 중요하다. 현재를 “이미지의 시대”<sup>23</sup>라고 불러도 무방하다. 어디를 가도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들고 있다. 그리고 화면 밖보다 화면 안의 이미지들을 더 들여다본다. 또한 화면 밖의 세상도 이미지로 둘러싸여 있다. 서울의 강남이나 맨하탄 타임스퀘어에 가면 광고를 비롯한 이미지들이 사람들을 사방을 넘어 위 아래까지 점령하고 있다. 건물의 외관을 LED가 완전히 뒤덮어서 그 건물의 모습이 어떤지 보이지도 않으며, 예전의 모습이 기억나지도 않는다.

또한 이미지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을 말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평판이나 브랜드 파워, 또는 상징성(symbol)도 이미지이다. 예를 들어 애플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 심플, 혁신, 캘리포니아, 실리콘 벨리 등의 이미지가 떠오른다. 이것이 이미지의 힘이다.

이미지는 장점이 많다. 복합적이고 역설적인 의미도 한꺼번에 담을 수 있고 사람들의 다감각적 경험을 가능하게 함으로 정해진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상상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게 함으로 그 안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한다.<sup>24</sup> 더 나아가 이미지는 문자보다 더 큰 각인을 남기기 때문에 그 효과는 더욱 크다.

스윗은 교회도 이미지가 중요하며, 이미지가 은유와 영성의 메시지를

<sup>23</sup> 이솔, 『이미지란 무엇인가』(서울: 민음사, 2023), 10.

<sup>24</sup> Ibid.

상징적으로 전하는 수단이 되어 함을 강조한다. 포스트모던 이전의 신학자들이 “이성과 질서를 중심에 둔 지적 신앙을 창조하려고 노력”<sup>25</sup>하면서 신비와 은유를 비논리적이며 비이성적으로 여기며 무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스윗은 이것을 안타까워하며 교회가 이미지를 복음을 전하는 데 잘 사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이미지가 기존의 다른 것들을 밀어내거나 대체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이미지는 원래 존재하였고 기독교 역사에서 이미지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유용한 통로였고 도구였다.<sup>26</sup> 성경 안에 있는 이미지들도 “그것이 개념이든 대상이든 보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상징화시켜 주는 기능을 담당했다.”<sup>27</sup>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인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장 잘 보여준다. 또한 이 위대한 이미지를 통해 교회는 성장했고 복음은 전파되었다.

교회의 역할은 이런 이미지의 장점을 활용하여 교인들이 세상의 문화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미지의 지배를 받는 건전한 이미지를 만들도록 돕는 것이다.”<sup>28</sup> 사람들에게 생각을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라는 생각할 도구를 주는 것이다. 이미지는 감동을 일으키고 사람들은 그 경험에 반응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미지를 통해 직접 느끼고 상호작용을 한다. 다감각적 학습을 통해 언어의 틀을 뛰어넘는 경험을 하게 하며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몸으로, 입으로 반응하기도 하고, 자신의 경험과 지난 삶이 이미지와 만나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주기도 한다. 그리고 이것은 EPIC의 E(경험)과 P(참여)를 더 풍성하고 깊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

<sup>25</sup> 김영래, “다중적 삶을 통한 기독교 교육,” 442.

<sup>26</sup> Ibid., 443.

<sup>27</sup> 김영래, “전자미디어 이미지의 영향에 대한 종교,”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3(1) (2004), 226.

<sup>28</sup> 스윗,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 교회』, 147.

이에 따라 이미지는 직접 느끼게 해주어야 한다. 즐길 수 있는 영역으로 두어야 한다. 이미지를 설명하려고 하면서 사람들은 기독교를 어렵게 느끼기 시작했다. 은유적인 부분은 은유의 영역으로 두며 신비스러운 모습 자체를 인정하며 나아가야 하는 데 이것을 이성으로 설명하려다 보니 그 안에 역설과 오류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 4. 관계적 (Connected)

현대사회의 특징 중 하나인 개인주의는 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나 의무감을 약화시켰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개인주의는 또 다른 공동체의 성장을 가져왔다. 기존의 공동체가 성장한 것이 아니라 개인 선택의 공동체가 성장한 것이다.<sup>29</sup> 이것은 기존의 가치로 세워진 경계가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과 새로운 사람들이 경계를 초월하여 이어지고 관계를 맺는 초연결성을 보여준다.

이것은 물리적인 공간이나 사회적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인터넷에서 더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이베이와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상거래 사이트뿐 아니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구 트위터), 블로그 등 다양한 SNS(Social Network Service)에서 사람들은 연결되어 있다. 물건을 홍보하고, 사고 판다. 또한 여러가지 분석을 통해 구매 후기를 남기고 의견을 주고 받는다. 인터넷은 성별, 나이, 지역, 사회적 지위, 언어를 초월하여 관계를 맺고 연결하는 통로가 되었다.<sup>30</sup>

이런 시대적 흐름은 사회 안에 개인주의가 강해져도 사람들은 여전히 서로

---

<sup>29</sup> Ibid., 163.

<sup>30</sup> Ibid., 164.

연결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교회 안에도 이 모습이 두드러진다. 스윗은 교회가 큰 행사 중심의 목회에서 작은 단위인 셀을 기초로 한 소그룹 중심 관계적 목회로 변하고 있으며 교회가 밀접하고 서로 신뢰할 만한 관계를 조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이 앞으로의 목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았다.<sup>31</sup>

더 나아가 이 관계는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교인들을, 교인들과 교인들을, 교인들과 말씀을 이어주고 서로 연결되게 한다. 그리고 관계 속에서 공동체는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그 공동체는 더 단단해진다.

스윗의 EPIC 모델은 교회 부흥이나 변화를 위한 전략이 아니다. 복음이 삶 속에서 살아 있는 사건으로 만드는 목회 철학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EPIC 모델은 2026년인 지금도 여전히 교회에 유효하고 필수적이다. 시대는 바뀌고 기술은 발전하여도 사람들은 경험과 참여, 이미지와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교회도 이 모델을 기반으로 발전되고 변형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제 미국교회들 안에 EPIC 모델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 B. 미국교회에서의 EPIC 모델 적용

필자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한인교회에서 사역을 하였고, 뉴저지 주와 뉴욕 주(특히 맨하탄, 브루클린, 퀸즈)의 미국 교회들(Liquid Church,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Time Square Church, Brooklyn Tabernacle Church)을 다녀왔다. 그리고 2023년 1월에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와 네바다에서 특징 있고 성장하는 교회들(Saddleback Church in Lake Forest, Eastside Christian Church in

<sup>31</sup> 김영래, “다중적 삶을 통한 기독교 교육,” 444.

Anaheim, Central Church in Henderson, Mosaic Church in Los Angeles, Zoe Church in Los Angeles, Hillsong Church in Los Angeles)들을 다녀왔다. 교회들의 교단과 스타일은 다양했지만 그들은 스윗이 이야기하는 EPIC 모델이 적용되어 있었다. 경험과 참여, 이미지와 관계를 예배뿐 아니라 사역 전반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물론 탐방한 교회들이 모두 풍부한 재정과 많은 교인들이 있는 대형교회(Megachurches)들이기 때문에 미국의 교회가 모두 이런 특징을 갖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큰 미국 땅에서 동부로 대표되는 뉴욕 주와 뉴저지 주, 그리고 서부로 대표되는 캘리포니아 주의 교회들이 EPIC 모델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역과 환경이 달라도 이 모델이 보편적으로 정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C. 한국교회에 적용 가능성

한국 교회에는 EPIC 모델이 적용 가능할까? 한국 교회는 다른 나라들의 교회들보다 미국 교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다. 따라서 한국 교회 안에 스윗의 EPIC 모델을 적용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 미국 교회가 한국 교회보다 우월하거나 앞서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미국 감리교회와 장로교회가 한국 복음화와 선교에 앞장 섰고 한국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와 문화가 더 길기에 영향을 준 것이다. 이러한 영향은 미국 교회 뿐 아니라 유럽의 영국 교회, 호주 교회 등도 주었다. 한국 교회 안의 예배, 교회 음악, 위십과 찬양, 조명, 사역의 종류 등 한국교회는 다른 나라 교회들에게서 좋은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그 안에 EPIC 모델이 있다.

한국교회들 안에서도 EPIC의 요소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인지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스윗의 모델을 알면 보인다. 한국의 대부분 대형교회들은 EPIC의 모든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인 교회의 경우 EPIC 중 한 두 가지를 특화시키고 상황에 맞게 변형시켜 적용한 교회들도 있다. 이렇게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각 교회마다 상황과 환경이 다르고 특히 재정과 교인 수, 그리고 지역 차이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 교회들 중 EPIC 모델의 모든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미국교회의 모습과 다르게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사회와 교회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EPIC이 미국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한국 사회와 교회는 어떤 특수성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 III. 한국 사회와 교회의 현 상황

#### A. 한국 사회의 변화

##### 1. 초저출산

저출산은 한국 사회 뿐 아니라 전 세계가 겪는 현상이다.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의 경우 1990년대부터 합계출산율이 1.3 이하였다. 아시아의 경우 유럽보다 속도가 느리다고 생각되었지만, 최근 그 속도는 매우 빨라졌고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는 초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 중에 있다. 한국의 경우 1958년에는 100만 명이 넘게 태어났다면 2020년에는 30만 명도 태어나지 않는 상황이다.

2023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클로디아 골딘 교수(미국 하버드대학교)는 한국의 초저출산의 원인을 저조한 남성 육아 참여라고 보았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보조금과 혜택을 늘리는데 주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근본 해결 방법이 아니며, 출산율을 높이기 원한다면 사회 시스템과 분위기를 바꾸어야 한다고 하였다.<sup>32</sup>

클로디아 골딘 교수의 분석은 한국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었다. 남녀 성별

---

<sup>32</sup> 송영찬, “육아 참여 낮은 한국 남성… 저출산 원인,” 『한국경제』, 2025년 1월 5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78140?sid=104> (최종접속 2026년 2월 15일).

임금의 격차가 크고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은 한국은 출산율이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한국 미래에 여러 갈등을 초래할 것이다. 저출산으로 노동할 수 있는 생산연령인구는 감소하고 고령화로 사회보장 비용은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줄어드는 젊은 사람들이 감당해야 한다. 이것은 세대간 갈등과 대립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국가 경제는 흔들릴 수 밖에 없다.

한국사회 초저출산의 문제는 한국교회의 문제로도 이어진다. 직접적으로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가 많아지고, 부모들은 자녀 신앙교육을 위해 교회학교 시스템과 시설이 잘 되어있는 대형교회로 교회를 옮길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작은 교회들은 더 상황이 악화되고, 교회 존속의 문제와 목회자의 생계 문제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 2. 외로운 사회

2023년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한국 1인 가구수는 7,829,035 가구이다. 2021년에 700만 가구를 처음 돌파했는데, 2년 만에 80만 가구나 늘었다. 1인 가구 증가 원인은 다양하다. 취업, 주거 문제, 고령화, 개인주의 확산, 혼인율 저하 등 다양하고 복잡하다. 2050년이 되면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이 39.6%가 될 것이라 전망한다.<sup>33</sup> 1인 가구 나이 비율은 노년층 비중이 가장 높다. 2035년이 되면 1인 가구 중 25%가 노인이 될 것이며, 2050년이 되면 70세 이상 1인 가구 비율이 42.9%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sup>34</sup> 독거 노인의 비율이 늘어난다는 것은 취약층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고독사의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sup>33</sup> 지용근 외, 『한국 교회 트렌드 2024』, 65.

<sup>34</sup> Ibid.

서울시는 임대주택이나 고시원과 같은 주거 취약 지역 1인가구를 조사했는데, 84,500가구 중 52,700가구가 고독사 위험군이라 판단했다.

한국 사회가 단순히 초고령화 사회가 되는 것과 외로운 사회가 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수명이 길어지고 평균 연령대가 높아지는 현상과 그것이 외로움과 연결되어 독거 노인의 비율이 늘어난다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이다. 또한 이것은 비단 한국 사회 만이 직면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닌 한국 교회도 함께 풀어가야 할 부분이다.

### 3. 무속 신앙 관심과 의존도 증가

일제 강점기에는 무속 신앙을 미신으로 여겼고 정부는 무속 신앙을 억제하는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무속 신앙은 사라지지 않았고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AI가 등장한 2024년에도 무속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뜨겁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무속이 확산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종교의 유무와 관련이 크게 없으며,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다. 2023년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19-34세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점, 사주, 타로 등의 경험이 있는지 물었고 그중 “그렇다” 라고 대답한 사람은 45.4%였다.<sup>35</sup>

과학의 발전과 무속은 공존이 불가능할 것 같지만 공존하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다. 점복문화연구소 염은영 소장은 경쟁 사회에서 누구나 패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미래의 불확실성과 개인주의가 맞물려서

<sup>35</sup> 정재영, “젊은이들이 왜 무속 신앙에 빠져드는가?,” 『데일리굿뉴스』, 2024년 8월 12일,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no=437527> (최종접속 2026년 2월 15일).

무속, 역술 산업 시장이 커졌다고 보았다.<sup>36</sup> 또한 2025년 10월 31일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서울시립미술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무속 영향을 받은 작품들을 전시하였고 MZ세대들이 많이 몰린다고 한다. 그리고 한국의 무속이 서구 미술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이것을 K무속이라고 부르기도 한다.<sup>37</sup>

무속 신앙은 정치권 안에서도 큰 이슈와 파장을 일으켰다. 윤석열-김건희 정권은 무속 정권이란 비판을 받았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손에 왕자를 쓰고,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긴 것에 대해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무속인의 조언이라는 의혹은 계속 되고 있다.<sup>38</sup> 직접적이지는 않아도 한국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속에 무속의 영향과 그림자가 숨어 있다.

한국 교회 교인들도 무속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6에 따르면 무속이 대중문화 속에서 확산 됨에 따라 기독교인들 사고 방식 안에 무속적 요인들(운명론, 조상의 음덕 등)이 깃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교회 안에 무속적 요인들은 예전부터 존재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은 기복주의 신앙이다. 물질의 복, 육신의 건강 등을 최고의 복이라고 여기는 모습들이 한국 교회 안에 만연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21세기 교회연구소 정재영 소장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성경 중심의 신앙 교육과 기독교 신앙과 무속의 차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성도들이 성숙한 신앙을 가진다면 무속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질 것이라고 보았다.<sup>39</sup>

<sup>36</sup> 이성원 외, “달나라 가는 AI 시대에 무속이 공존하는 이유는,” 『한국일보』, 2024년 10월 14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27650?sid=102> (최종접속 2026년 2월 15일).

<sup>37</sup> 허윤희, “굿판 열리고 오컬트 행위 펼쳐지고... 미술판도 K무속이 대세,” 『조선일보』, 2025년 10월 31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37999?sid=103> (최종접속 2026년 2월 15일).

<sup>38</sup> 정병진, “20여 년 동안 한국 무속인 수 급증...왜 그럴까,” 『오마이뉴스』, 2025년 1월 17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59973?sid=103> (최종접속 2026년 2월 15일).

<sup>39</sup> 송경호, “‘신앙의 빈틈을 무속이 파고든다’ ... 청빙, 호모 스피리추얼리스 등,” 『크리스천투데이』, 2025년 10월 8일,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71098> (최종접속 2026년 2월 15일).

## B. 한국 교회의 변화

### 1. 한국 개신교 인구 감소

2024년 9월, 목회데이터연구소가 한국 기독교 장래 인구 추계(2050년까지)를 발표하였다. 2001년부터 2022년까지 교단별 교세 통계 자료를 분석하였는데 2050년까지 한국 기독교 인구는 11.9%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sup>40</sup> 2033년까지는 0.4-0.5% 비율로 감소하지만 2038년을 기점으로 비율은 1%로 커지고 2047년에는 3%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sup>41</sup> 이 정도 수치이면 개신교가 더 이상 한국에서 대표하는 종교라고 보기 힘들 정도이다.

그리고 개신교 인구 감소를 세대와 지역으로 분석하였을 때 2030세대의 감소가 두드러지며 기독교인은 농어촌 보다는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한국 시도별 인구 수를 비교해보면, 2024년 기준으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인구 수가 약 2,630 만명이다. 전체 인구가 약 5,175 만명이라고 보았을 때 50.8%가 수도권에 살고 있다.<sup>42</sup> 이에 따라 개신교 인구도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기에 개신교 인원 감소는 수도권 교회 교인 수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교회는 고령화가 되어 노인 비중이 높아졌다가 2038년 이후로 전체 기독교인 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추측한 이유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던 노인들의 수가 줄어들기

<sup>40</sup> 넘버즈, “기독교 통계(225호)-한국 기독교 장래 인구 추계(2050년까지),” 2024년 9월 10일, [http://numbers1.cafe24.com/bbs/board.php?bo\\_table=gugnae&wr\\_id=129&page=2](http://numbers1.cafe24.com/bbs/board.php?bo_table=gugnae&wr_id=129&page=2) (최종접속 2025년 11월 22일).

<sup>41</sup> Ibid.

<sup>42</sup> 지표누리 e-나라지표, “지역별 인구 및 인구밀도,” 2025년 5월 7일,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IPageDetail.do?idx\\_cd=1007](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IPageDetail.do?idx_cd=1007) (최종접속 2025년 11월 22일).

때문이다.

## 2. 한국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 증가

한국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목회의 현장에서 절실하게 느낄 수 있다. 교회 안에는 기성 세대들과 시니어들은 많이 있지만 젊은 세대들은 부족하다. 교회학교부터 3040 세대까지의 인원이 부족하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 안의 미래세대 부족을 의미하지 않는다. 교회의 위기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젊은 세대가 오지 않고 오히려 떠나는 현상은 종교 선호도의 변화라기 보다는 기독교가 사회 안에서 신뢰를 잃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기독교를 바라보는 부정적 인식의 요인은 다양하며 복합적이다. 일부 교회들에게서 드러난 재정 운영의 불투명성, 교회 지도자의 윤리적 일탈, 교회의 정치적 편향성은 기독교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시켰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부분들이 개교회의 문제로 인식되기 보다는 한국 교회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기독교는 사회적 신뢰를 잃었고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종교를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주목할 점은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이나 복음 자체를 향하고 있다기보다 교회의 제도와 구조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종교의 세속화와 더불어 교회가 사회 안에서 공적 공동체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문제의 핵심은 신앙의 진리성에 대한 거부라기보다 교회의 삶과 실천이 그 신앙을 설득력 있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의 증가는 앞서 살펴본 한국 개신교 인구 감소 현상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특히 청년 세대는 종교적 정체성보다 공동체의 진정성과 공공성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며,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 신앙 공동체로의 소속 자체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한국 교회의 인구 감소 문제는 단순한 출산율 저하나 인구 구조 변화의 결과로만 이해될 수 없으며,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 상실이라는 질적 위기와 함께 종합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 IV. K-EPIC과 꿈의교회

꿈의교회는 스웨트의 EPIC 모델을 한국 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재구성하였다. 꿈의교회에는 드류신학교(Drew Theological Seminary)에서 대학원(The Master of Divinity)이나 박사(Doctor of Philosophy) 학위를 받은 학생들이 부목사로 사역을 하였다. 필자도 드류에서 대학원(M.Div)을 졸업하였으며 스윗 교수와 엘킨스 교수(Dr. Heather Murray Elkins)로부터 예배학을 배웠다. 또한 꿈의교회 예배기획팀장을 하면서 꿈의교회 일년 계획부터 예배의 모든 부분을 총괄하였고, 기획하였다. 그 안의 기본에는 스윗 교수와 엘킨스 교수의 가르침이 녹아져 있으며, 특히 김학중 목사의 목회 방향 위에 EPIC 모델을 적용하고 더 발전시켰다.

필자는 이것을 K-EPIC이라 부르고 싶다. K는 Korean의 약자이다. 한국은 세계 속에서 문화 강국으로 성장하며 K-culture(Korean culture)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다. 이것은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 붙여져서 이름만 보아도 사람들이 신뢰할 K-EPIC을 목회 전반에 적용한 교회이다.

담임목사인 김학중 목사는 문화에 관심이 많았는데, 문화를 맹목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시대적 변화에 대한 민감한 통찰과 복음의 본질에 대한 신학적 확신을 가지고 문화를 목회에 접목시켰다. 김학중 목사의 사역은 전통의 핵심을 지키면서도 창의적인 생각과 도전을 통해 새로운 세대와 소통하고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복음의 입체적 구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K-EPIC은 스웨트가 제시한 네 가지 E(Experiential, 경험), P(Participatory,

참여), I(Image-driven, 이미지), C(Connected, 관계)를 분리된 네 기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복음의 통합적 메시지를 드러내는 하나의 생태계로 이해한다. 실제 사역현장에서 K-EPIC은 경험, 참여, 이미지, 관계가 단일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복합적이며 다층적으로 작용한다. 또한 그 안에는 미국 교회와 다른 한국 교회의 특수성과 문화적인 부분이 접목되어 있다.

K-EPIC은 EPIC의 네 가지 요소를 유지하지만 각 요소들이 교회의 구조와 생태계 전반에 융합되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재해석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EPIC의 강점인 문화적 소통과 예배 방식의 전환 위에 K-EPIC은 공동체, 양육, 관계의 지속성이라는 실천적 부분을 더하였다. 단순한 현지화가 아니라 한국 사회 안의 한국 교회 상황에 맞게 적용과 변형된 목회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꿈의교회에서 적용된 K-EPIC의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이 모델들이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A. K-EPIC이 적용된 꿈의교회

### 1. 경험하고 느끼는 교회(Experiential Church)

#### a. 레포즈교회: 지역 문화공간을 활용한 공동체(E+C)

꿈의교회(구 레포즈교회)는 경험 중심 사역의 대표적인 교회이다. 김학중 목사는 교회가 주일에 예배만 드리는 공간이 아니라 평일에도 사람들이 드나들고 북적이는 공간이 되기를 지향해왔다. 1992년 새안산교회를 개척한 후 교회는 급성장하였다. 개척 3년 만에 600석 규모의 예배당을 건축하였고, 2001년 안산 고잔

신도시에 1200석 규모의 새성전을 건축하였다. 그때, 김학중 목사는 교회 이름을 새안산교회에서 레포즈교회로 바꾸었는데 그 이유는 공간과 정체성에 대한 대대적인 전환을 하기 위함이었다. 교회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교회의 존재 방식과 목회 철학에 대한 결단과 선포를 한 것이다.

2000년 초에 안산 지역은 수영, 배드민턴, 스쿼시 등 피트니스를 위한 문화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김학중 목사는 이것을 지역 사회의 결핍으로 받아들였고, 교회가 지역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따라 교회 내부에 헬스, 수영, 스쿼시, 배드민턴, 요가 등을 할 수 있는 피트니스 공간을 만들고 교인 뿐 아니라 지역 사람들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다. 가격은 부담 없이 책정하였고 이용자들은 종교시설에 온다는 불편함과 심리적 장벽 없이 교회를 출입하였다. 이로 인해 평일에도 교회는 지역 사람들로 붐볐고 교회는 예배당이며 지역 복합 문화공간이 되었다.

2000년에도 교회에 대한 세상의 인식과 사회의 분위기는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었다. 따라서 비기독교인들을 전도하거나 교회로 초청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레포즈교회는 이 난관을 실천적으로 돌파하였다. 전도나 초청 없이, 접촉을 통한 점점 없이 교회 공간을 문화 공간으로 전환시킴으로 비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자연스럽게 경험하도록 한 것이다. 그 결과 레포즈교회는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교회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긍정적인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레포즈교회는 교인 수가 급증하여 2006년에 새 성전(현 꿈의교회)를 건축하였다.

꿈의교회는 경험이 한국적 맥락 속에서도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생기지만<sup>43</sup>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교회를

---

<sup>43</sup>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17, 개역개정).

경험하게 하는 것도 전도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레포즈 교회는 복음을 말로만 전하지 않고 문화 공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경험하게 하는 교회였다.

또한 레포즈교회는 EPIC 모델 중 C(Connected)를 공간적으로 실현한 목회라고 볼 수 있다. 교회를 세상과 단절된 섬이 아닌 이웃과 연결되고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작동하는 복음의 통로로 이해한 것이다. 교회 개방은 어느 교회나 할 수 있다. 그러나 개방을 관계 형성과 공동체적 소통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레포즈교회는 이것을 연결함으로 스윗이 말한 Connected Church를 구체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b. 드림키즈빌리지: 다음 세대를 위한 감각적 신앙 체험 공간(E+I+C)

김학중 목사는 2019년에 레포즈교회 건물을 리모델링하였다. 건물 안에 있던 피트니스 센터와 수영장을 전면 철거하고, 이 공간을 오롯이 다음 세대 어린이들을 위한 복음의 체험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였다. 외관도 일반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건물임을 보여주는 디자인하였으며, 이름부터 아이들을 위한 공간임을 보여준다. 그림 4-1이 드림키즈빌리지의 외관인데 보수적인 한국 교회에서 이런 디자인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시도와 변화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감각으로 기억하게 해야 한다는 김학중 목사의 목회 철학이 반영된 것이다.



<그림 4-1. 드림키즈빌리지 외관>

드림키즈빌리지 1층에는 베이커리 카페인 킹스 블랑제리와 대형 키즈카페가 있다. 이곳은 평일과 주말 모두 붐비는데, 평일 오전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단체 예약을 하여 이용하며 평일 오후와 토요일에는 지역의 부모와 어린이들에게 개방된다. 그리고 주일에는 교회 아이들이 예배를 드린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놀거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카페 의자에서 지켜 볼 수 있다. 그림 4-2를 보면, 카페 의자에 앉아서 키즈카페 안을 들여다 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2. 키즈카페 안을 볼 수 있는 테이블과 의자 >

모든 시설은 무료이며 사용에 아무런 제약도 없다. 이처럼 개방된 접근성은 교회를 낫설고 이질적인 공간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드나들 수 있는 생활의 일부로 만들어준다. 그림 4-3은 키즈카페 내부이다. 아이들이 이곳에 들어오면 여기가 교회인지, 일반 키즈카페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교회의 공간이라기 보다 아이들의 재미와 즐거움에 초점을 맞추어 인테리어를 하였다.



<그림 4-3. 키즈카페 내부>

건물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맞이하는 것은 시각적 구조가 아니라 후각의

언어이다. 매일 만드는 빵과 커피의 냄새가 로비에 은은하게 퍼지며 교회를 찾은 이들의 긴장을 풀어준다. 그리고 이곳은 따뜻하고 안전한 장소라는 첫 인상을 각인시킨다. 이것은 스윗이 말한 스타벅스 마케팅과 관련이 있으며 공간과 분위기, 그리고 냄새가 메시지라는 것을 교회 안에 구현한 것이다. 그림 4-4는 교회에서 만든 빵(소금빵, 무화과빵, 크로와상, 크렌베리빵 등)을 볼 수 있으며 브런치 메뉴도 판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4-4. 킹스 블랑제리 빵과 브런치 메뉴 안내>

드림키즈빌리지 2층과 3층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테마형 놀이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놀고 즐길 수 있는 플레이 그라운드룸과 시네마룸이 있으며, 농구 오락기를 비롯한 다양한 게임기(조이스틱 게임기, 숨은그림찾기 등, 그림 4-5 참고)도 있다. 이곳은 단순히 노는 공간이 아니라 예배 공간으로 활용 되는데 아이들은 신앙의 언어를 머리로만 배우지 않고 몸으로 익히고 관계 속에서 기억을 한다. 이 공간들은 말씀을 설명하는 교실이

아니라 오감과 움직임 속에서 말씀을 자연스럽게 체화하는 장이다. 따라서 아이들은 성경의 이야기를 수동적으로 듣지 않고 입체적인 이야기로 보고 듣고 느낀다. 이처럼 드림키즈빌리지는 EPIC의 E(경험)를 구현한 공간을 넘어서 I(이미지)의 요소까지 가지고 있다.



<그림 4-5. 드림키즈빌리지 농구 오락기와 게임기>

더 나아가 드림키즈빌리지는 C(관계)도 실현하였다. 아이들 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부모가 머무를 수 있는 공간, 이웃과 만나는 공간, 지역 유아 교육기관과

연계하는 공간을 만듦으로 드림키즈빌리지는 신자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지역 공동체와 호흡하고 불신자들과 연결하는 거점이 되었다.

### c. 몸의 감각과 경험을 극대화시키는 예배

김학중 목사는 교인들이 예배 안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은혜를 받고 복음을 깨닫기를 원했다. 이에 따라 예배당을 설교 전달의 공간이 아니라 은혜를 오감으로 느끼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꿈의교회 예배당에는 콘서트장과 견줄만한 조명, 음향, 포그머신, 와이드 LED가 있다. 이러한 시설과 장비는 매 예배마다 같은 설정으로 운영되지 않고 상황과 분위기, 그리고 예배의 형식에 맞게 운영한다. 그림 4-6은 주일 예배 때, 본당 조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여준다. 꿈의교회는 본당 안에 창문을 통한 빛이 들어오지 않는다. 창문은 있으나 조명을 통한 예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커튼으로 빛을 차단하며, 예배가 끝난 뒤에는 커튼을 올려 빛이 본당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 이렇게 함으로 사람들이 본당 밖을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며, 예배 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게 하는 분위기를 형성한다.



<그림 4-6. 주일저녁예배 W위십 조명>

꿈의교회 주일에는 여섯 번의 예배가 있는데 모두 형식이 다르다. 1부는 성찬이 있는 전통 예배, 2부는 예전 중심 예배, 3부는 현대 예배, 4부는 미디어 예배, 5부는 청년 예배, 6부는 W 위십으로 드린다. 이에 따라 교인들이 주일의 모든 예배를 드려도 다른 예배를 드린다는 느낌을 받아 지루하지 않다. 그리고 1부부터 6부의 변화는 점진적이다. 예전 중심의 전통예배에서 현대의 리버럴(liberal)한 예배로의 점진적인 변화가 마치 그라데이션 같은 예배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 따라서 교인들은 전도를 할 때, 태신자의 성향과 스타일에 맞는 예배에 데려가 예배에 대해 친근감을 느끼게 하고 정착률을 높인다.

교인들이 시각과 청각, 또한 공간 감각을 통해 자연스럽게 예배에 몰입한다. 모든 장치는 장식이나 이벤트를 위한 효과장치가 아니라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돕는 수단이며 통로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예배당을 비롯해 교회 건물에 후각이라는 감각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김학중 목사는 ‘예배에 향기를 담을 수 없을까’ 라는 질문을 품고 호텔, 쇼핑몰, 박물관, 전시장 등을 다니며 그곳에서 사용하는 아로마 마케팅을 목회에 접목시켰다. 김학중 목사는 사람들이 장소를 눈으로 기억하기도 하지만 향기로도 기억하며, 향은 감정의 기억을 오래 남기고 정서적 안정과 몰입을 돕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교회 로비와 본당에 다른 향을 배치하여 교인들이 향으로 공간을 기억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2023년 12월 31일 송구영신예배 때는 피톤치드 향기가 나는 말씀카드를 제작하여 전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매년 새해 말씀카드를 제작하였지만, 이번에는 향기를 통해 말씀을 감각적으로 기억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향기를 넣은 것이다. 봉투 안에 향을 머금은 말씀카드를 넣고, 향이 새지 않도록 밀봉하였다. 이것은 말씀을 눈을 넘어 다른 기관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시도였다. 향기나는 말씀카드는 2023년 송구영신예배를 시작해 2025년 송구영신예배 때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매년 퀄리티를 높이고 있다. 그리고 2025년 12월 31일에 사용한 말씀카드는 다른 교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판매까지 하였다. 다음 사진은 2025년 12월 31일 송구영신예배 때 교인들에게 나누어 준 향기나는 말씀카드이다. 향기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카드는 밀봉되어 있다. 그리고 밀봉된 포장지 안에는 사람들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피톤치드 향을 품은 말씀카드가 들어있다.



<그림 4-7. 2025년 송구영신예배 향기나는 말씀카드>

## 2. 교인들이 참여적인 교회 (Participatory Church)

### a. 평신도 사역자가 이끄는 훈련 프로그램

꿈의교회는 참여 공동체이다. 그리고 교인들의 참여는 훈련 사역에 두드러진다. 꿈의교회는 2002년에 평신도 지도자 훈련원을 만들었다. 이곳은 일반적인 교회들의 훈련 프로그램들과 다르다. 평신도 지도자 훈련원은 철저하게 평신도에 의해 운영되고 움직인다. 훈련된 평신도들이 리더가 되어 다른 평신도를 훈련한다. 프로그램마다 지도 목사가 있기는 하지만, 그 역할은 작다. 목사는 바운더리를 지켜주는 울타리 역할 또는 전체 방향성과 책임을 맡는 우산 역할을 할 뿐, 모든 활동과 준비, 그리고 진행은 평신도가 한다. 평신도 지도자 훈련원은 평신도가 신앙의 주체로 서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기능하며, 사역의 주도자로 성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훈련 프로그램은 크게 세 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계는 새신자(Novice)

단계로 새가족 가디언스와 꿈의 알파가 속해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성숙자(Sophomore) 단계로 바이블워크(일대일 양육), 꿈의 기도학교, 어머니학교, 아버지학교, 큐티운동본부, 엔조이 TD(Tres Dias) 등 일상 속 신앙생활과 연결된 과정들이 속해 있다. 세 번째는 사명자(Leader) 단계로 DMT(Disciple Mission Training), 꿈의 아카데미, 드림영성이 속해 있으며 신앙의 깊이와 공동체 속에서의 섬김과 책임, 그리고 생활 속 전도 등을 훈련한다. 그림 4-8은 2024년 전략세미아 훈련사역국 비전과 프로그램들이다. 세 단계의 훈련프로그램들이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프로그램들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교인들은 한 프로그램을 수료하면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을 들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다.



<그림 4-8. 2024년 전략세미아 훈련사역국 비전과 프로그램들 >

훈련 프로그램들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모든 훈련이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실질적인 기획과 실행, 양육은 평신도가

주체가 되어 이끈다. 꿈의교회는 훈련프로그램을 통해 사역 구조를 목회자 중심에서 평신도 중심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구조는 평신도가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꿈의교회는 2년을 주기로 목회자의 인사 및 보직이 변경된다. 그러나 이러한 변경에도 훈련 프로그램은 어떤 타격을 받지 않고 문제 없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목회자 중심의 시스템이 아니라 평신도 리더십 중심의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평신도들이 자신이 섬기는 프로그램을 위해 더 모이고 더 기도한다. 이러한 참여를 통해 평신도들은 신앙이 내면화되고, 내면화된 신앙은 사역으로 이어진다. 더 나아가 사역은 건강하게 성장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진다.

꿈의교회 훈련 프로그램은 교회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참여를 통해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생태계이다. 평신도가 예배를 드리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청중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신앙의 주체가 되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기능하며 하나님 나라 사역의 동역자가 된다.

#### b. 교회 카페와 편의점 : 자발적 참여와 섬김

꿈의교회 드림키즈빌리지 1층에는 킹스 블랑제리(King' s Boulangerie) 카페가 있고 본관 1층에는 C-Space 편의점이 있다. 카페는 매일 직접 구운 건강 빵과 꿈의교회만의 블렌딩 원두로 내린 커피를 판매한다. 원두도 사람들의 취향과 나이든 교인들을 위한 디카페인 커피까지 판매를 한다. 일반 카페와 다를 것과 없는 다양한 커피 메뉴(카페라떼, 바닐라라떼, 녹차라떼 등)와 기업에서 만드는 음료수들(페리에, 애플 주스, 오렌지 주스, 탄산 음료 등)도 판매한다. 대신 가격을

시중보다 싸게 판매한다. 그 이유는 교회가 크게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이윤 조차 전액 선교비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편의점에서는 도시락, 삼각김밥, 음료, 생필품, 의약외품 등을 판매한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 먹을 수 있는 한강라면 기계가 있어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청년들이 많이 이용한다.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보기 드문 모습들이 꿈의교회 안에서는 많이 보여진다. 그림 4-9는 교회 편의점 외부 모습과 내부 모습이다.



<그림 4-9. C-Space 편의점 외부와 내부>

그리고 꿈의교회는 카페와 편의점이 단순히 교인들만을 위한 편의시설이 아니다. 평일에는 교인들 뿐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비기독교인들(Non-Christian)들이 많이 온다. 교회가 공원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산책을 하다가 들어와서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꿈의교회의 공원 뷰가 유명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를 들어오는데 전혀 불편해하지 않는다(그림 4-10 참고). 또한 좋은 빵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커피, 게다가 넓은 주차장은 사람들이 이곳에 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 김학중 목사는 처음부터 교회카페를 만들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름도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나 지명으로 짓지 않았다. 교회 밖에 카페를 만들어도 어색하지 않은 이름과 퀄리티의 카페를 지향하며 킹스 블랑제리를 만든 것이다. 그리고 편의점도 매점 형식으로 할 수 있었지만 편의점 브랜드인 C-Space24에 문의를 하여 꿈의교회점을 만들었고 교회 밖의 편의점과 동일한 물건을 동일한 할인율과 프로모션<sup>44</sup>을 한다.



<그림 4-10. 교회 킹스 블랑제리 카페 내부와 공원 뷰>

그런데 이 공간들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운영 방식이다. 카페와 편의점은 유급 직원이나 아르바이트 인력 없이 전적으로 평신도 봉사자들에 의해 운영된다. 평신도들은 자원 봉사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신앙의 실천이자 참여적 헌신으로 생각하며 섬긴다. 평신도 안에 리더를 세우고 자발적으로 시간대를 나누어 봉사한다. 섬김의 형식은 자유롭지만 책임과 정체성은 분명하다. 빵이나 커피, 또는 물품 등을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공간으로 여기지 않고, 환대와 친절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여기며 자리를 지킨다. 모든 수익은 선교비로 사용되기 때문에

<sup>44</sup> 시중에 있는 편의점들(세븐일레븐, GS 25 등)은 물건을 판매할 때 1+1, 2+1의 프로모션을 한다. 또한 어떤 물건을 살 때, 사은품을 함께 주는 프로모션을 한다.

섬김에 임하는 평신도들의 마음이 다를 수 밖에 없다.

교회는 평신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감사하게 여기며 그들을 분기별로 교육한다. 베이킹 클래스와 커피 클래스를 운영하여 열정이 있는 평신도들을 교육하여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참여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동시에 고려한 것이며 참여자에게는 사역의 자부심을, 교회에는 안정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상호 보완적인 선택이다. 그리고 교회 카페를 교인들이 주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며 평일에도 이용하고, 또한 비기독교인인 지역 사람들도 이용하기 때문에 맛과 질을 높여야 한다는 생각에서 나온 선택이기도 하다.

### 3. 이미지를 추구하는 교회 (Image-driven Chu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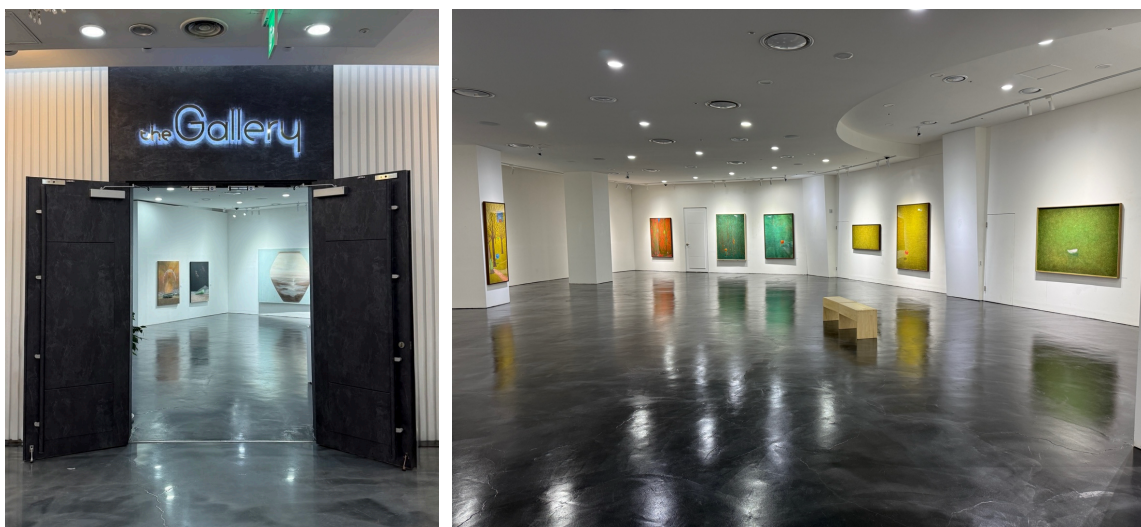
#### a. 더 갤러리 : 이미지를 통한 열린 교회

꿈의교회 본관 1층에는 ‘더 갤러리’ (The Gallery)가 있다. 2021년, 교회 본관 1층의 소예배실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만든 더 갤러리는 도시 한복판의 작은 문화 전시관이자 쉼터로 만들어졌다. 이 공간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피로와 단절 속에서 교회가 지역 사회에 열어놓은 문화적 환대의 창이었다. 교회 공간을 교인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쓰지 않고 안산 시민들과 소통하는 모두를 위한 오픈 공간으로 만든 것이다.<sup>45</sup> 또한 김학중 목사는 작가들이 전시회를 열고 싶어도 대관비 때문에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교회를 작가들과 지역 주민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바꾼 것이다. 더 갤러리로 대여비는

<sup>45</sup> 박지훈, “안산 꿈의교회 더 갤러리로 ‘예술 바캉스’ 오세요,” 『국민일보』, 2021년 8월 4일,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03433> (최종접속 2026년 2월 16일).

있다. 그러나 시중의 갤러리와 비교했을 때 저렴한 가격에 작품전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유명한 전시회가 열리기도 하지만 신예 작가들의 작품 전시회도 열린다.

그리고 더 갤러리는 교인들에게만 열린 공간이 아니다. 이 말은 단순히 비기독교인들이 더 갤러리에 온다는 말이 아니다. 기독교인 뿐 아니라 비기독교인들이 자연스럽게 드나드는 것은 물론이고 작가들이 기독교인이 아닐지라도 전시를 할 수 있다. 다른 종교의 색이 강한 전시회를 열지는 않지만 작가가 비기독교인 것은 전시회를 여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더 갤러리가 교회 갤러리나 교인들의 취미 예술 전시 수준에 머무르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림 4-11은 더 갤러리 내부 사진이다. 사진만 보면 교회 안의 갤러리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기독교인 작가들도 더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여는데 어려움이 없고, 비기독교인이 전시를 보러 오는데 어려움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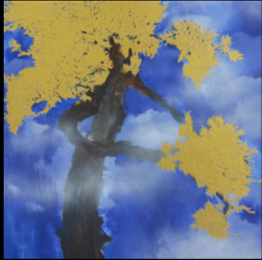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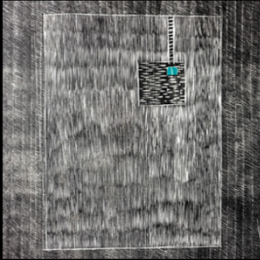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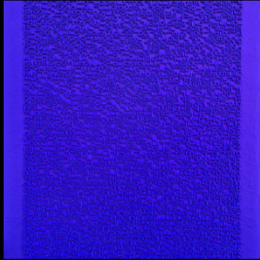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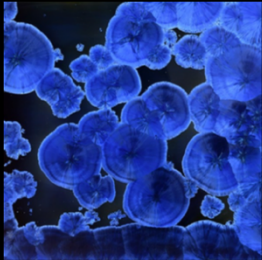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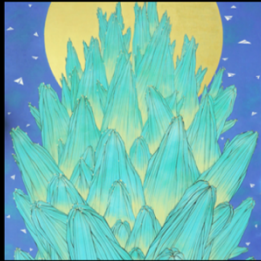
<그림 4-11. 더 갤러리 외부 문과 내부 전시 작품전>

또한 전시를 감상한 사람들은 교회 카페 킹스 블랑제리에서 대화를 나누고, 침묵 기도실을 둘러보며 교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교회는 복음을 말로 설득하거나 전도지를 통해 접근하지 않는다. 교회 입구부터 더 갤러리로 가는 동안 교회 후보나 교회에 등록하라는 어떤 메시지도 없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도 없고 교회에 온 것을 환영한다는 문구도 없다. 이것조차 이미지이며, 이 이미지가 예술 작품을 보러 온 비기독교인들에게 반감이나 안 좋은 느낌이나 불편함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공간 전체가 이미지와 감각을 통해 자연스럽게 교회에 대한 편안함을 제공한다. 실제로 교인들은 더 갤러리를 전도의 기회로 활용을 한다. 누군가를 교회에 초대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전시회 보러 가자는 말은 훨씬 가볍고 자연스럽게. 전도 대상자가 교회의 뜰을 밟고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교회에서 만나자고 하면 거부를 한다. 그러나 갤러리는 다르다. 기독교 신앙을 내비치는 직선적이고 노골적인 언어가 없기 때문에 들어오는데 어려움이 없고 전시회를 관람하며 교회 내 시설들을 이용할 때 마주치는 교인들의 호의적인 태도나 친절한 모습들이 교회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한다.

꿈의교회는 더 갤러리를 통해 그리고 작품들의 이미지를 통해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있던 사람들에게 친숙함과 호감을 형성하게 한다. 다르게 말하면 더 갤러리가 교회에 들어오게 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아래 그림 4-12는 2025년 2월부터 12월까지의 전시일정이다. 더 갤러리는 다양한 주제와 작품들이 일년 동안 쉬지 않고 전시된다.

**전시일정**

			
유미경 展_황금소나무 11월 28일(금) - 12월 10일(주일)	제2회 안산현대미술연구회展 10월 31일(금) - 11월 23일(주일)	박현철 展_Logos 9월 28일(금) - 10월 26일(주일)	LATTICE 2025_harmonize 8월 29일(금) - 9월 21일(주일)
			
설숙영전_MYSTERY & MEMORIES 8월 1일(금) - 8월 24일(주일)	오순자 展_꽃이야기 7월 4일(금) - 7월 27일(주일)	휘저 않는 나무 展_참여작가: 이시호, 이해진, 이재민, 박수림 6월 8일(주일) - 6월 29일(주일)	YOUNG K 展, Cloud Blossom ; Trajectory of Existence 존재의 궤적 2025. 5. 8(목) - 2025. 5. 30(금)
			
호세 번비디자 展, Sagso 표현주의 2025. 4. 15(화) - 2025. 5. 4(주일)	한정희 展, Voice of Nature -Evolution 2025. 4. 3(목) - 2025. 4. 13(주일)	강경목 展, 꽃 이야기 2025. 3. 7(금) - 2025. 3. 30(주일)	이윤정 展, 마을이 날다 2025. 2. 7(금) - 2025. 3. 2(주일)

더보기

<그림 4-12. 2025년 2월부터 12월까지의 전시 일정>

b. Lumen Fidei(침묵 기도실)

2022년, 꿈의교회는 1층의 작은 공간을 침묵 기도실로 만들었다. 교인들은 이곳을 침묵 기도실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정확한 이름은 Lumen Fidei<sup>46</sup>이다. 그림 4-

<sup>46</sup> Lumen Fidei는 라틴어이다. Lumen은 빛, 밝힘이란 뜻이며, Fidei는 믿음이다. 김학중 목사는 기도를

13은 침묵기도실 입구이며, 문 옆에 Lumen Fidei라는 글자의 십자가를 볼 수 있다.



<그림 4-13. 침묵기도실 입구>

김학중 목사는 도시 속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한 침묵 기도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교회 안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과감한 결단을 한 것이다. 교회 1층 로비에 인접한 공간은 활용도가 높은 곳이다. 기존에는 지역교회가 수요예배를 드리는 공간이었고, 그 안에는 100여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였다. 또 주중과 주일에는 여러 팀들과 부서들이 행사를 준비하거나 훈련 프로그램들을 하는 곳이었다. 그럼에도 김학중 목사는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 공간을 침묵기도실로 바꾸었다. 따라서 벽과 조명을 리모델링하여 교인들이 수도원이나 동굴에 들어온 느낌을 받게 하였다. 벽과 천장은 거친 느낌을 주었고 조명은 어둡게 하였다. 그리고 촛불로 은은한 빛을 내게 하였고, 스피커를 통해 떼제(Taize)

---

통해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요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침묵기도실을 ‘믿음의 빛’이라는 뜻의 Lumen Fidei로 지었다.

음악과 같은 경건한 음악이 나오게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인들은 침묵기도실에 들어가면 먼저 어둠 속에서 흘러나오는 불빛과 음악을 보고 들으며 분위기에 압도된다. 기도를 하기 전, 스윗이 말하는 EPIC 중 E를 경험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I를 보게 된다. 촛불과 십자가 앞에 있는 은은한 빛을 본다. 또한 벽에 있는 상징물들 보며 경건한 마음과 함께 기도에 대한 마음을 가지게 한다.



<그림 4-14. 침묵기도실 내부>

그림 4-14의 침묵기도실 내부에 보면 어떤 글이나 설명도 없다. 무엇을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보고 듣고 느낌으로 아는 것이다. 침묵기도실은 24시간 운영이 된다. 그리고 꿈의교회는 매년 11월 한달 동안 아하와 기도회<sup>47</sup>를 하는 데,

<sup>47</sup> 아하와 기도회는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 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라는 에스라 8장 21절 말씀에 근거하여 꿈의교회에서 매년 11월에 시작하는 기도회이다. 교회는 교인들에게 금식 저금통을 나누어주고 교인들은 매일 한끼 금식을 하며 금식할 때마다 1,000원에서 10,000원 사이의 금액을 현금하고 모인 현금을 아하와 기도회 마지막 날 교회에 낸다. 그리고 그 금액은 전액 비전교회(미자립 교회)를 돕는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뉴스에서도 볼 수 있으며, CBS 노컷 뉴스의 기사 링크는 다음과 같다. 이준석, “‘다시 교회로! 다시 예배로!’ ...꿈의교회, ‘아하와 기도회’ 개최,” 『노컷뉴스』, 2022년 11월 2일, <https://www.nocutnews.co.kr/news/5842925> (최종접속 2026년 2월 15일).

이때 교인들은 돌아가면서 3만시간 기도운동을 한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도 하지만 이 기간에는 특별히 순서를 정해서 침묵기도실에 나와 릴레이 기도를 한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한 시간 또는 삼십 분씩 기도한다. 물론 이때에도 통성 기도보다는 침묵기도를 하도록 권장되며 하나님께 말하는 기도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듣는 것에 집중한다.

#### 4. 연결되고 이어주는 교회 (Connected Church)

##### a. 일대일 양육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국 교회가 마주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신앙의 개인화와 공동체성의 붕괴였다. 비대면 예배의 장기화와 모임 인원 제한으로 인해 소그룹 활동이 중단되었고, 교인들은 다시 모이는 것을 어려워하고 꺼려하기도 하였다. 꿈의교회에서 활발했던 훈련프로그램들도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는 전면 올스톱이 되었다. 모두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었고 기본적으로 찬양과 강의가 주를 이루는 사역들이었기 때문에 더 할 수가 없었다. 심지어 소그룹 중 가장 작은 모임이라는 셀모임조차 할 수 없었다. 교회가 코로나를 옮기는 곳처럼 되어버린 사회적 인식 속에서 꿈의교회는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며 정부의 방침을 준수하며 따랐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꿈의교회는 공동체성을 유지하고 개인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심하다가 일대일 양육 사역에 집중을 하였다.

일대일 양육은 이름 그대로 일대일, 양육자 한 명과 동반자 한 명으로 진행된다. 이런 이유로 팬데믹 상황에서도 인원 제한이 문제가 되지 않으며, 필요할

경우 줌(zoom)을 통한 비대면 진행도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덜 받는다.

일대일 양육은 다른 훈련 프로그램들과 다르다. 대부분의 기존 프로그램들은 강의 중심의 일방적 교육이라면 일대일 양육은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비추어보고 연결하며 나누는 대화 중심의 쌍방향 구조이다. 양육자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방식이 아니라 동반자와 함께 삶을 해석하고 말씀을 현실에 적용하는 깊은 대화를 나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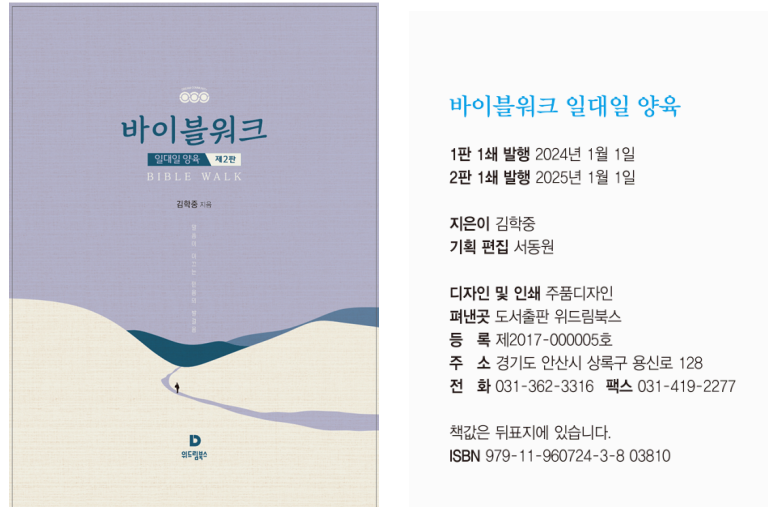
그리고 총 13주 과정으로 구성된 일대일 양육은 일주일에 한 번 만난다. 따라서 양육자와 동반자는 지속적으로 만나며 만남 속에서 삶을 공유하며 관계적 구조를 형성한다. 이것은 팬데믹으로 인해 단절된 신앙의 흐름을 다시 연결시키는 기능을 하였고, 특히 꿈의교회는 예배, 소그룹, 봉사 등 기존의 교회 구조가 일시적으로 중단되고 축소되었을 때 일대일 양육이 최소 단위의 공동체로서 교인들의 신앙을 붙드는 관계적 생명선이 되었다.

다른 교회들의 사역들이 멈추어져 있을 때, 꿈의 교회는 여러 사역 중 일대일 양육에 선택과 집중을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새로운 일대일 양육 책을 만드는 것이었다. 기존 일대일 양육 책도 좋았으나 23주 과정이었기 때문에 너무 길다는 피드백이 많았다. 이에 따라 그림 4-15에 있는 세 권의 양육 책을 한 권으로 묶고 시대에 맞는 내용을 추가하자는 이야기를 반영하여 책 작업에 들어갔다.



<그림 4-15. 기존 일대일 양육 책 바이블워크 STEP 1,2,3>

2023년부터 김학중 목사는 새로운 일대일 양육 책 제작을 들어갔고, 2024년부터 “바이블워크 일대일 양육” 책을 출판하였다. 700권을 만들었는데 일년이 되기 전에 소진되며 사역의 확장성을 확인하였고 2025년에는 제2판(그림 4-16)을 출판하였다. 필자는 김학중 목사가 바이블워크를 만들 때 함께 참여하였고 기획과 편집을 담당하였다. 기존 양육자들과 만나며 좋은 점은 발전시켰고, 아쉬운 점은 보완하였다. 현장의 소리와 니즈(needs)를 듣고 반영하였기에 교인들에게 더 좋은 책을 만들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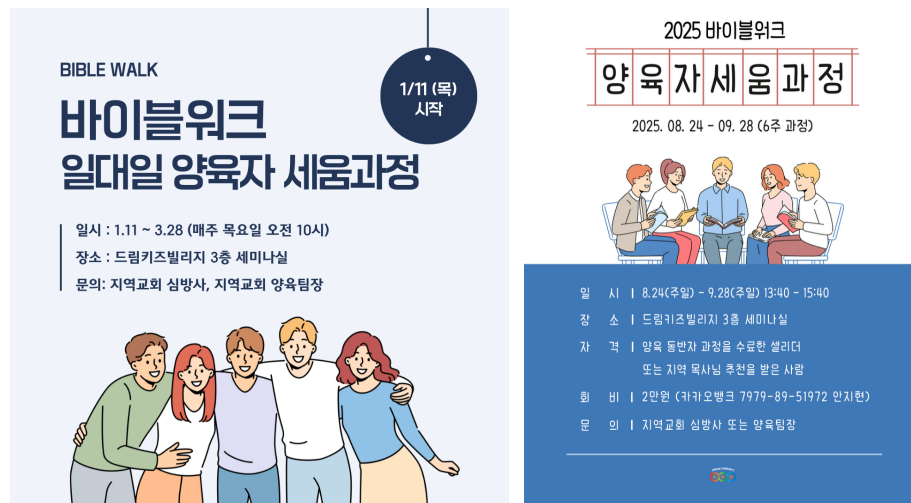
<그림 4-16. 바이블워크 제2판, 2025년 개정판>

일대일 양육은 개인의 신앙 성장을 넘어 교회 전체 구조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효과를 만든다. 일대일 양육은 먼저 동반자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돌본다. 그리고 동반자 과정을 마친 성도는 양육자 세움 과정(6주)을 통해 양육자로 세워질 준비를 한다. 동반자의 경험을 가지고 양육자로 세워지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양육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와 질문들을 모두 다룬다. 그림 4-17은 양육자 세움 과정 홍보 이미지이며, 일반적으로 약 50여명의 교인들이 신청하여 교육을 듣는다. 그림 4-18은 2005년 하반기 양육자 세움 과정 마지막 날 찍은 사진이며 그림 4-19는 2025년 동안 양육한 교인들이 모여 금요철야 때 특송한 사진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교회 내 중간 리더십은 강화가 되고, 새로운 양육자는 새로운 동반자를 낳는다. 그리고 늘어나는 숫자는 처음에는 적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엄청나다. 한 명이 두 명이 되고, 두 명이 네 명이 되고, 네 명은 여덟 명이 된다. 이 선순환 구조는 성도 간 신뢰 네트워크를 촘촘하게 만들고 코로나 이후 약화된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일대일 양육은 단순한 훈련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연결시키는 관계적 프로그램인 것이다.

K-EPIC의 관점에서 볼 때 일대일 양육은 교회 안에서의 교제나 친교 수준을 넘어 신앙의 본질을 관계적 구조로 발전시킨 Connected의 대표 사례이다. 신앙이 개인으로 축소되는 시대에 일대일 양육은 삶과 말씀, 교인과 교회, 개인과 공동체를 연결하는 한국적 EPIC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그림 4-17. 2024년, 2025년 바이블워크 일대일 양육자 세움 과정 포스터>



<그림 4-18. 2025년 바이블워크 일대일 양육자 세움 과정 수료자들>



<그림 4-19. 2025년 일대일 양육 양육자, 동반자 찬양>

b. 시니어 사역

꿈의교회는 2023년부터 시니어 사역을 시작하였다. 김학중 목사는

안산시로부터 지역 내에 독거 노인을 포함한 노년층들이 사회적으로 취약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특히 팬데믹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부 활동 제한은 노년층의 고립을 심화시켰고, 삶의 질을 급격하게 떨어뜨렸다. 특히 경로당이 폐쇄되거나 제한적으로 운영되면서 지역 사회 시니어들은 만남 단절, 우울 증가, 돌봄 기능의 약화를 동시에 경험하였다. 안산 지역의 경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농번기 이후 주로 경로당에 모여 대화도 하고 쉼을 갖는데 팬데믹 때는 그럴 수 없었던 것이다.

또한 안산시에서 경로당에 음식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일주일에 한 번 보내주며 지원을 했지만 팬데믹으로 그것마저 멈추었고, 팬데믹이 끝났다 해도 다시 사람을 보내는 일이 쉽지 않다. 서울처럼 버스나 지하철이 잘 되어있지 않고, 대중교통으로 가는데 한계가 있어서 개인 차로 가야 하는 데 개인 차를 가진 사람을 구하기도 쉽지 않고 급여 또한 적기 때문에 안산시 차원에서 경로당에 인원을 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김학중 목사는 교회가 시니어들을 다시 공동체로 연결하고, 삶의 돌봄을 회복시키는 사역의 필요성을 느꼈고, 2023년부터 시니어사역을 꿈의교회 핵심 사역으로 발표하였다.

시니어 사역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꿈의교회 시니어 사역은 경로당 중심으로 한 지속적, 관계적 돌봄 사역에 집중하였다. 이 사역은 단순히 봉사자를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지역사회, 시니어 세대를 연결하는 관계적 플랫폼이다. 또한 개교회의 결정과 선택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위하여 안산시청과 긴밀히 소통하고 시에서 추천하는 경로당들을 돕기 시작했다. 꿈의교회 시니어 사역의 과정과 특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꿈의교회는 일곱 개의 지역교회가 있다. 한 교회당 한 경로당을 맡고, 한달에

한 번 또는 두 번 경로당을 찾아간다. 매달 셋째 주 또는 넷째 주에 지역 교회 사역자들은 다음 달 봉사 일정을 경로당과 조율하고, 자체적으로 봉사가 가능한 교인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교인들은 경로당에서 점심은 물론이고 미용 봉사(커트, 염색), 마사지, 레크레이션, 청소 봉사 등을 하며 시니어 사역을 프로그램이 아닌 관계 중심의 상호 돌봄으로 여기며 섬긴다(그림 4-20 참고). 봉사, 공연, 식사 등의 시간 속에서 노인들은 단지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교제, 관계적 신뢰, 공동체적 소속감을 경험한다. 이러한 경험은 팬데믹 이후 더욱 약화된 노년층의 관계망을 다시 연결시킨다.



<그림 4-20. 경로당 섬기는 모습들-헤어, 네일, 음식>

그런데 꿈의교회 시니어 사역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교회는 시니어 사역을 통해 경로당을 섬기지만, 봉사하는 교인들 또한 섬기고 돌본다. 교인들의 삶을 면밀히 살피며 심방하고 돌본다. 시니어 사역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이유는 봉사자와

교회 사이에 서로 돌봄의 관계적 구조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에서 나오는 신뢰는 사역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된다.

### c. C2C 미디어 교회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고 교회 문이 닫히고 교인들이 예배를 참석하는데 어려움을 겪자 김학중 목사는 온라인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예배를 라이브로 송출하는 데 힘을 쏟았다. 단순히 예배를 송출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방송국이 공연을 송출하듯이 무대 세팅, 카메라 위치와 각도, 조명 등 방송에 필요한 모든 부분에 신경을 썼다. 김학중 목사는 CBS 새롭게 하소서에서 진행자를 하였기 때문에 방송 시스템을 잘 알았다. 이에 따라 다른 교회보다는 수월하게 세팅을 할 수 있었다.

김학중 목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온라인 교회를 만들었다. 필자는 초대 미디어팀장으로 온라인 교회를 만드는데 책임자 역할을 했다. 교회 이름은 C2C 미디어 교회라고 하였으며 C2C는 Church to Churchless의 약자이다. 일반 교회와 이름이 다르고 생소하게 느껴지지만 교회를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온라인 교회라는 의미를 담아 C2C라고 한 것이다. 코로나 시기에는 주일에 교회를 갈 수 없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이사간 교인들이 교회 등록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런 어려움에도 예배는 드려야 하기에 온라인 교회를 만든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지금은 C2C 교회가 출장을 가거나 주일에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간호사와 같은 직장인들을 위한 교회가 되었다. 또한 교회에 상처가 있어 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되기도 하고, 유학생들이나 이사를 가서 교회를 찾는 이들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 2026년 기준 미디어교회 교인은

약 1,800명 정도가 되며 미디어 교회 담당 목회자 5명이 교인들을 돌본다. 그림 4-21은 C2C 미디어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교회 소개 내용이다. 미디어 교회가 어떤 교회이며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다.

C2C 미디어교회는 미디어교인을 위한 매일 저녁 예배 콘텐츠와 온라인 수요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전화와 줌(zoom)으로 교인들을 심방한다. 대면 심방을 요청하는 경우 목회자들이 미디어 교인을 만나기도 하며, 결혼식 주례나 장례 주관예배를 드리기도 한다. 미디어교회는 온라인에만 머물지 않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넘나드는 하이브리드 교회이다.



#### C2C미디어교회는

C2C미디어교회는 교회가 없는 사람들을 향한 교회(**Church To the Churchless**)로서 다양한 이유로 신앙생활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입니다.

#### C2C미디어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이전에 없던 새로운 교회입니다.**

온전히 미디어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교회입니다. 현장의 예배 실황을 중계하는 것을 넘어 미디어에 최적화된 예배를 지원합니다.

**건물이 없는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도 없고 건물 유지비도 없습니다. 주차장도 필요 없고 가까이 살아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더 나누고 성결 수 있는 교회입니다.

**경계가 없는 교회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 상에서 교회로 모임 수 있습니다. 도시를 넘어, 국경을 넘어 함께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신앙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하는 교회입니다.

**모두를 위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C2C미디어교회는 세상을 위한 교회입니다. 세상과 사회를 섬기는데 50% 이상의 재정을 배분하는 교회입니다.

#### 왜 C2C미디어교회가 필요한가요?

**새로운 환경의 변화를 주도하는 교회입니다.**

2020년, 우리는 일상 속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C2C미디어교회는 변화를 이끄는 안전한 교회, 존중 받는 교회입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교회입니다.**

TV, 신문, 책으로 사람들을 만나던 시대가 저물었습니다. 장년 세대는 물론, 모든 세대가 미디어 세대가 될 것입니다. C2C미디어교회는 미디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그림 4-21. C2C 미디어교회 홈페이지<sup>48</sup> 교회 소개>

B. K-EPIC의 효과와 평가

1. 긍정적인 효과

꿈의교회의 K-EPIC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무너진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데 의미 있는 기여를 하였다. 비대면 예배와 제한된 모임은 신앙을 개인의 영역으로 머무르게 하였고 코이노이아(교제)와 공동체적 신앙 경험은 점차 약화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꿈의교회는 예배와 사역 전반을 통해 신앙이 개인의 영역에 멈추지 않고 경험과 참여, 그리고 이미지와 관계 속에서 다시 공동체적으로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국 사회가 급변하고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하지만 그 변화로 인한 관계 단절과 정서적 공허, 의미 상실의 문제는 끊임없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교회가 K-EPIC을 통해 응답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영역이 되었고, 이것은 교회가 사회 속에서 여전히 공동체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K-EPIC은 신앙의 기초와 본질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함으로 교인들에게 뿌리 깊고 균형 잡힌 신앙을 키우게 하며, 이러한 과정은 개인의 신앙 성숙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의 회복으로 이어지며, 개인과 교회가 함께 살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어 모두를 윈윈(win-win)하게 하는 목회 모델이다.

<sup>48</sup> <https://c2cmedia.org> (최종접속 2026년 2월 16일).

## 2. 한계와 지속 가능성

앞서 살펴본 꿈의교회 사례는 K-EPIC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 교회의 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과 방향을 보여준다. 그러나 동시에 꿈의교회 K-EPIC은 교회의 규모, 재정, 그리고 김학중 담임목사의 리더십과 같은 특정 조건 위에서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한계와 지속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a. 전통적 교회 구조와의 갈등

꿈의교회 안의 K-EPIC은 한국 교회에 혁신적인 방향을 제시하지만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한국 교회들의 목회 방식에는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교회와는 달리 한국 교회는 장로교단이 메인 스트림이다. 그리고 장로교단 중 한국기독교 장로회(기장)을 제외한 나머지 교단들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다. 따라서 K-EPIC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장로교단일지라도 대형 교회들은 이미 K-EPIC의 모습들을 많이 구현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은 쉽게 변화를 하며 도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것은 장로교 만의 어려움이 아니며,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의 어려움이기도 하다.

### b. 지속적인 투자 필요성

K-EPIC은 기술과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속적인 재정적 투자와 인적 투자가 필요하다. 미디어 콘텐츠 제작, 예배 환경 개선, 지역 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은 초기 비용뿐 아니라 장기적인 재정

뒷받침이 요구된다.

그렇다고 해서 재정적으로 어렵고 인원이 적은 교회도 K-EPIC을 구현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E, P, I, C 중에 한 가지 혹은 두 가지를 특화시켜 구현할 수 있으며 시골 교회의 경우 지역 공동체와 연결되어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EPIC 목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투자는 필수적이기에 작은 교회들은 선뜻 K-EPIC을 받아들이고 발전시킬 생각을 하기는 쉽지 않다.

## V. 결론

### A. 요약

#### 1. 연구 배경 요약

코로나19 팬데믹은 한국 교회에 예배 방식의 변화 뿐 아니라 교회의 구조와 신앙의 형태의 전반적인 부분을 흔든 전환점이었다. 현장 예배 중단과 온라인 예배의 확산은 신앙의 개인화를 가속화하였고 공동체적 결속은 약화되었다. 더 나아가 교인 수 감소, 다음 세대 단절, 교회에 대한 신뢰 하락이라는 기존의 구조적 위기가 결합되며 한국 교회는 단순한 침체를 넘어 근본적 재구성을 요구 받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시기는 코로나 이전 상태로의 회복이 아니라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전환의 시기이다. 특히 교회 성장과 프로그램 중심 목회가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와 단절과 같은 급작스러운 변화 앞에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한계들을 보였다. 이에 따라 교회는 복음의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변화된 사회와 문화 속에서 교회의 존재 방식을 새롭게 발전시키고 재구성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2. 연구 목적과 연구 질문

본 논문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교회가 직면한 위기 속에서 스윗의 EPIC 모델이 한국 교회 현실에 어떻게 재해석되고 변형될 수 있는지 탐구하였다. 이를 위해 꿈의교회와 김학중 목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K-EPIC 모델의 구조와 실제 적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전개 되었다. 첫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교회는 어떠한 구조적, 신앙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가? 둘째, EPIC 모델은 이러한 위기에 어떤 한계를 가지는가? 셋째, K-EPIC 모델은 한국 교회 현실 속에서 어떤 대안적 가능성을 제시하는가?

### 3. 연구 방법 요약

본 연구는 이론 연구와 질적 사례 연구를 병행한 실천신학적 접근을 취하였다. 스윗의 EPIC 모델을 이론적으로 고찰한 후, 한국 사회와 교회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꿈의교회 사역을 참여관찰 방식으로 연구하여 K-EPIC 모델이 실제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탐구하였다.

## B. 주요 연구 결과

### 1.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교회의 위기

한국 교회는 공동체성 약화, 신앙의 개인화, 세대 단절, 사회적 신뢰 상실이라는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 팬데믹은 이것을 더 악화시켰다. 전염의 위험성으로 인한 거리두기와 물리적 단절, 그리고 공간의 개인화는 사람들의 신앙도 개인적으로 변화시켰고, 공적 공동체로서 역할을 하던 교회의 기능이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교회 안에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줄었으며, 교인들이 관계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관계의 이유와 유익, 그리고 의미들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

## 2. EPIC 모델의 유효성과 한계

EPIC 모델은 경험, 참여, 이미지, 관계를 강조하며 포스트모던 시대 속에서 교회의 문화와 소통 방식을 새롭게 하는 데 유효한 통찰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 모델은 미국 교회의 문화를 기반으로 발전된 이론으로 한국 교회에 적용은 가능하지만,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한계를 지닌다. 한국 교회가 직면한 공동체 붕괴, 인구 구조 변화, 사회적 신뢰 상실이라는 구조적 문제 속에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 3. K-EPIC 모델의 핵심

K-EPIC 모델은 EPIC의 단순한 현지화 또는 토착화가 아니라 한국 교회의 문화적, 사회적 현실 속에서 재구성된 통합적 목회 모델이다. 경험, 참여, 이미지, 관계를 분리된 요소로 보지 않고 예배, 훈련, 공간, 공동체, 지역사회 사역 전반에 유기적으로 통합하였다.

### C. K-EPIC 모델의 목회적 의의

#### 1. 실천신학적 의의

본 연구는 이론과 현장을 통합한 참여관찰 기반 사례 연구를 통해 한국 컨텍스트(context) 안에 적용 가능한 목회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꿈의교회의 실제 사역 구조를 보여주며 K-EPIC 모델이 구현 가능한 실천신학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 2. 한국 교회를 위한 목회적 대안

K-EPIC 모델은 교회 안에서 경험, 참여, 이미지,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디다케, 케리그마,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레이투르기아)을 교회 안에서 구현하는 도구가 되며, 목회자 중심 사역에서 평신도 주체적 참여 구조로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교회를 내부 중심 조직에서 지역사회와 연결된 공적 공동체로 발전시킨다.

## 3.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에 대한 시사점

드림키즈빌리지와 같은 공간을 통한 사역 사례는 신앙 형성이 교육 전달이 아니라 경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전도 페러다임도 설득 중심에서 경험 중심으로, 초청 중심에서 접촉 중심으로 전환될 때 더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더 갤러리와 교회 카페의 사례처럼 교회 안에 거부감이 없는 공간을 만들어 접촉할 수도 있고, 교회가 경로당과 같은 지역사회로 나아가 접촉하며 복음의 내용이 아닌 복음의 본질인 사랑과 기독교 가치를 행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전도를 위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아도 전도가 되는 모습은 한국 교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보여준다.

## D. K-EPIC 모델의 한계와 비판적 성찰

### 1. 사례 연구의 한계

꿈의교회라는 단일 사례를 중심으로 K-EPIC 모델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일반화의 한계가 있다. 꿈의교회는 대형교회로서 풍부한 재정 자원과 전문 사역 인력, 체계적인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조건은 다수의 중소형 교회가 동일하게 확보하기 어려운 요소들이다. 이런 이유로 연구에서 분석된 K-EPIC의 구조와 운영방식이 한국 모든 교회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K-EPIC 모델은 보편화 될 가능성도 가지고 있지만, 적용 방식에서 교회 규모와 자원 상황에 따른 신중한 재구성과 적용이 요구된다.

### 2. 재현 가능성의 문제

K-EPIC 모델은 각 교회의 규모, 지역적 특성, 문화적 환경, 리더십 구조에 따라 상이한 형태로 변형될 수밖에 없다. 특히 중소형 교회의 경우 전문 인력의 부족, 재정적인 제약, 공간 인프라의 한계로 인해 꿈의교회와 동일한 방식의 적용은 어렵다.

그리고 한국 사회 내부에서도 도시와 농촌, 세대 구성, 지역 문화의 차이는 교회의 사역 방식과 공동체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결과적으로 K-EPIC 모델은 하나의 고정되고 획일화 된 모델로 복제되어 적용되기 보다는 각 교회의 맥락에 맞게 재구성하는 유연한 모습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3. 신학적 위험 요소

K-EPIC 모델이 경험과 감각, 참여, 이미지, 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은 오늘 날의 문화와 소통한다는 강점이 있지만 신학적 위험 요소도 존재한다. 특히 경험 중심의 신앙이 강조가 될 경우 신비적이고 감정적인 체험에 의존하게 될 수도 있고, 교리적 성찰이나 이성적인 신앙이 약화될 수도 있다. 이것은 신앙의 깊이와 성숙, 그리고 지속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

또한 이미지와 감각적 요소를 활용한 설교나 복음 전달은 메시지의 전달력을 높일 수 있고,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신앙이 시각적 자극과 문화적 소비 형태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복음의 본질이 흐려질 수도 있다. 그리고 경험 중심 사역과 공간 중심 사역이 교회의 브랜딩이 될 경우 신앙이 소비주의적 종교 문화로 오해될 수 있으며, 그러한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도 높기에 이를 경계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K-EPIC 모델은 문화적 소통의 도구로 활용하되, 기독교 복음의 본질 위에 세워져야 하며, 때로는 비판적으로 성찰되고 균형 있는 운영이 요구된다.

#### E.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는 꿈의교회 안에 있는 K-EPIC 모델의 구조와 가능성을 탐구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나 이를 확장하기 위해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첫째, 중소형 교회를 포함한 다양한 규모의 교회에서 K-EPIC 모델이 어떻게 적용되고 변형되는지를 분석하는 비교 사례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K-EPIC 모델의 보편성과 적용 전략을 정교하게 만들 수 있다. 둘째, K-EPIC 모델을 기존의 교회 성장 이론 및

목회 패러다임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이론적 차별성과 기여도를 학문적으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음 세대 신앙 형성과 공동체 유지에 미치는 장기적 효과를 추적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이는 경험 중심 목회의 지속 가능성과 신앙 성숙에 대한 실증적이고 실제적인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넷째, 온라인 교회의 확산되고 AI가 발전하는 시대 속에서 K-EPIC 모델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동체가 공존하는 하이브리드 교회 환경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확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며 필요하다.

#### F. 결론적 제언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한국 교회의 위기이자 동시에 구조적 전환의 기회이다. 교회는 침체되고 있고, 기존 목회의 패러다임의 한계는 드러났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 교회에게 변화하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과거의 성장 모델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변화된 문화와 사회 환경 속에서 교회의 존재 방식을 재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스윗의 EPIC 모델을 분석하고 검토하였다. 그리고 한국 교회 현실 속에 재해석하고 발전된 K-EPIC 모델을 꿈의교회의 사례를 통해 제시하였다. K-EPIC은 단순한 사역 전략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경험, 참여, 이미지, 관계를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목회 생태계로 기능하며 공동체 회복과 공공성 회복을 지향하는 구조적 대안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K-EPIC 모델은 예배 중심의 제도적 교회에서 삶 중심의 공동체적 교회로, 목회자 중심 운영 구조에서 평신도 주체적 참여 구조로, 교회 내부 중심 사역에서 지역 사회와 연결된 공적 공동체로의 전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는 한국 교회가 복음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와

소통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실천적 방향을 제시한다.

그러나 K-EPIC 모델이 한국 교회를 위한 답은 아니다. 각 교회의 맥락과 현실 속에서 비판적으로 수용되고 재구성 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성찰과 실천적 검증을 통해 발전되어야 할 열린 모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이 제시한 K-EPIC 모델은 결론이라기보다 출발점과 가깝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속에서 한국 교회가 스스로를 성찰하고 갱신해 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방향성을 제공하는 제안이다.

결론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 교회는 과거의 회복을 목표로 삼는 공동체가 아니라 복음의 본질 위에서 새로운 시대적 조건 속에서 교회를 재구성하는 공동체가 되기로 요청된다. 본 연구는 K-EPIC 모델이 그러한 재구성의 한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한국 교회가 위기의 시대를 통과하며 다시 공동체성과 공공성을 회복해 가는 길에 실천적, 신학적 단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 참고문헌

## 국내서적

박영숙, 제롬 글렌. 『세계미래보고서』. 서울: 비즈니스북스, 2020.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 교회 진단 리포트』. 서울: 두란노, 2025.

지용근 외. 『한국 교회 트렌드 2024』. 서울: 규장, 2023.

김영래. 『기독교교육과 삶』.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17.

이슬. 『이미지란 무엇인가』. 서울: 민음사, 2023.

대한성서공회.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2014.

## 번역서적

스윗, 레너드.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 교회』. 김영래 역. 서울:

좋은씨앗, 2002.

-----,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김영래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 학술논문

김영래. “다중적 삶을 통한 기독교 교육 : Leonard Sweet의 EPIC 교회모델을  
기초로.” 『신학과 세계』 43 (2001), 432-454.

김영래. “전자미디어 이미지의 영향에 대한 종교.”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3(1)  
(2004), 219-239.

## 신문기사

송영찬. “육아 참여 낮은 한국 남성... 저출산 원인.” 『한국경제』. 2025년 1월

5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78140?sid=104> (최종접속 2026년 2월 15일).

정재영. “젊은이들이 왜 무속 신앙에 빠져드는가?.” 『데일리굿뉴스』. 2024년 8월 12일.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37527> (최종접속 2026년 2월 15일).

이성원 외. “달나라 가는 AI 시대에 무속이 공존하는 이유는.” 『한국일보』. 2024년 10월 14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27650?sid=102> (최종접속 2026년 2월 15일).

허윤희. “굿판 열리고 오컬트 행위 펼쳐치고… 미술관도 K무속이 대세.” 『조선일보』. 2025년 10월 31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37999?sid=103> (최종접속 2026년 2월 15일).

정병진. “20여 년 동안 한국 무속인 수 급증…왜 그럴까.” 『오마이뉴스』.

2025년 1월 17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59973?sid=103> (최종접속 2026년 2월 15일).

박지훈. “안산 꿈의교회 더 갤러리로 ‘예술 마캉스’ 오세요.” 『국민일보』.

2021년 8월 4일.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03433> (최종접속 2026년 2월 16일).

이준석. “‘다시 교회로! 다시 예배로!’ …꿈의교회, ‘아하와 기도회’ 개최.”

『노컷뉴스』. 2022년 11월 2일. <https://www.nocutnews.co.kr/news/5842925> (최종접속 2026년 2월 15일).

웹사이트

송경호. “ ‘신앙의 빈틈을 무속이 파고든다’ … 청빙, 호모 스피리추얼리스 등.”

『크리스천투데이』 . 2025년 10월 8일.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71098> (최종접속 2월 15일).

넘버즈. “기독교 통계(225호)-한국 기독교 장래 인구 추계(2050년까지).” 2024년

9월 10일.

[http://numbers1.cafe24.com/bbs/board.php?bo\\_table=gugnae&wr\\_id=129&page=2](http://numbers1.cafe24.com/bbs/board.php?bo_table=gugnae&wr_id=129&page=2)

(최종접속 2025년 11월 22일).

지표누리 e-나라지표. “지역별 인구 및 인구밀도.” 2025년 5월 7일.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1PageDetail.do?idx\\_cd=1007](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1PageDetail.do?idx_cd=1007)

(최종접속 2025년 11월 22일).

<https://c2cmedia.org> (최종접속 2026년 2월 16일).

## V I T A

### PERSONAL DATA

Full Name: Dongwon Seo

Place and Date of Birth: Suwon, South Korea, August 26, 1988

Parent`s Names: Inseok Seo and Myungsoon Park

### EDUCATIONAL INSTITUTIONS

<u>School (Name and Address)</u>	<u>Degree</u>	<u>Date</u>
Secondary: <b>Hyowon High School</b> 336, Dongsuwon-ro, Yeongtong-gu, Suwon-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Diploma	Feb 8, 2007
egiate: <b>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b> 56, Dongnimmun-ro, Seodaemun-gu, Seoul, Republic of Korea	BA	Feb 19, 2013
Graduate: <b>Drew University</b> 36 Madison Ave, Madison, NJ 07940	M. Div	Dec 16, 2016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Signature

Dongwon Seo

Name typed

March 15, 2026

date